

7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63.35	↓ 코스닥	815.76
	(+0.73)		(-0.75)
↓ 금리 (국고채 9년)	3.726	↑ 환율 (원·달러)	1299.40
	(-0.048)		(+2.50)



주총시즌 ‘행동주의 펀드’ 두 얼굴

소액주주 가치 증대 VS 단기차익 노린 먹튀

최근 주식 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소액주주들의 권익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영권 분쟁 등의 과정에서 주가가 크게 등락해 개미 투자자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행동주의 펀드로 인해 기업 가치가 제고돼 주가가 대체로 상승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단기 이익을 위해 기업을 공격하거나 경영권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의 과실만 챙겨 떠나면서 주가급락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동주의 펀드의 두 얼굴적인 형태가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치임으로 인해 그 대상이 된 기업들의 주가는 대체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KB증권이 행동주의 펀드의 대상이 된 기업들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SM엔터테인먼트, BYC, SK 등 16개 종목은 지난달 말까지 코스피 지수 대비 평균 15.95%포인트 초과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M과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이 작년 2월 21일 SM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등 주주 제안에 나선 후 SM의 주가는 이날 기준 109.60% 올랐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16일 강성부펀드로 알려진 KCGI가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을 담은 주주서한을 보낸 이후 거래정지 전인 2월 27일까지 34.21% 상승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대상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했다”며 “특히 행동주의 캠페인에 영향받은 일부 기업들은 주주제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견조한 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건드린 종목들이 하나의 테마주로 작용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고 나면 나중에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기 일쑤이다.

지난달 19일 SBS는 얼라인이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후 얼라인이 공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주가는 10% 넘게 급락했다. 그러나 얼라인이 비공식적으로 추천한 사외이사가 SBS 주주총회 선임 안건으로 오르자 주가는 다시 상승했다.

〈4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유통가, 사명교체 바람… 신사업 육성 ‘빅픽처’

롯데제과, 56년 만에 새 사명 추진
사업 다각화로 종합식품기업 도약
매일유업도 신사업 확장 위해 검토

공격적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식품업계가 ‘빅픽처(bigpicture)’를 위해 사명 변경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롯데웰푸드 사명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명에서 제과를 빼는 것은 지난 1967년 설립 이후 56년만이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7월 롯데푸드와 합병 이후 사명 변경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롯데제과란 이름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설립한 롯데그룹의 모태기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높지만 롯데푸드와 합병 후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면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

어, 사명 변경에 대한 의지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롯데제과 측은 “롯데제과와 푸드가 합병하면서 사업군이 넓어졌다”며 “롯데제과란 기존 사명으로는 신사업들을 품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사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명 변경은 주주 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제과는 본업을 넘어 제빵, 육가공, 차세대 먹거리 발골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캐나다 식용 곤충 제조기업 아스파이어푸드 그룹(Aspire food Group)과 대체단백질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맺고 100억원 가량 투자했다. 비건 브랜드 론칭도 계획중이다. 지난해 12월 자사 식물성 식품 라인을 강화

하고 비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까지 신청했다.

매일유업도 사명 변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 우유·분유 비중을 줄이고 디저트·대체유·단백질 등 신사업 분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유업 측은 “사명변경을 검토해오고 있는 사안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유업 의존도를 줄이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주회사매일홀딩스의 매출 기준 유가공부문 비중은 2018년 83%에서 2021년 71%로 하락했다. 대신, 단백질 보충식품 ‘셀레스’와 ‘아몬드브리즈’ ‘어메이징 오트’ 등 식물성 음료시장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용 “젊은 기술인재가 제조업 원동력”

〈삼성전자 회장〉

경북 구미 마이스터高 방문
“혁신 책임질 기술인재 항상 응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래 동행’을 이어갔다. 이 회장은 7일 경북 구미에 있는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인재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는 행보이다.

구미공고는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다. 전자과와 메카트로닉스와 등 2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주요 관계사에서 숙련 기술 인재로 활약하는 임직원 2000여명을 배출한 명문이다.

이 회장은 ‘PCB(전자기기용 인쇄회

로기판)’ 설계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간담회를 통해 관심 산업 분야와 기술인재로서의 꿈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회장은 “젊은 기술인재가 제조업 경쟁력의 원동력”이라며 “현장 혁신을 책임질 기술인재들을 항상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랫동안 기술인재 육성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왔다.

2006년 상무로 재직할 당시 일본 기업을 방문했다가 핵심 공정 인력들이 국제기능올림픽과 일본 내 기능대회 수상자 출신임을 확인하고 깊은 인상

을 받았던 것.

당시 이 회장은 “삼성이 앞장서서 우수 기술 인력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기업도 성장하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며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우수 기술인재들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갖는 일을 해 보자”고 제안했다. 기술인재 육성 행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구미전자공고 방문에 앞서 구미에 있는 ‘스마트 시티’를 찾아 갤럭시 S23 제조현장을 점검하며 ‘미래 동행’ 행보도 이어갔다.

/김재용 기자 juk@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석열 대통령, 16~17일 방일 정상회담 부상
▲ 한미연합 비상활동주요 이착륙 훈련 실시
… 韓 C-130, 美 A-10 등 참여 /사진 뉴시스

▲ 北외무성 “한미 연합훈련… 핵전쟁 현실화 단계 경고”
▲ 국민의힘, 16일 정책의총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



▲ 대통령실 전대 개입 의혹… 김기현 vs 안-천-황 대립 격화 /사진 뉴시스
▲ 검찰, 이재명 조만간 재판 넘길 듯… ‘은닉 혐의’ 김민배도 곧 기소

우리금융 9개 계열사 CEO 물갈이… 이원덕 행장은 ‘사의’

임종룡 號 출범 앞두고 조직개편
혁신·미래경쟁력 확보에 방점
총괄사장제·수석부사장제 폐지
지주 임원 11명→7명으로 축소
전체 인력도 약 20% 정도 감축

우리금융그룹이 임종룡 신임 회장 취임
을 앞두고 대대적인 인사·조직 개편
을 실시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
은 자회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자회
사 14개 중 은행 포함 9개 자회사 대표를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조직혁신과
미래경쟁력 확보라는 신임 회장의 경영
전략 방향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 자취위는 우리카드 대표에
박완식 우리은행 개인·기관그룹장을,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에는 조병규 우리
은행 기업그룹장을 각각 추천했다. 우
리종합금융 대표에는 김응철 우리은행
외환그룹장을 내정했다. 우리자산신탁
대표는 이종근 우리금융 경영지원부문
전무,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는 전상욱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우리금융

우리금융 미래성장총괄 사장이 맡는
다. 우리펀드서비스 대표에는 김정록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을 추천했고, 우리
자산운용 대표에는 외부 출신인 남기천
전 멀티에셋자산운용 대표를 영입했
다. 이들 CEO는 오는 22~23일 각자 주
주총회를 거쳐 취임할 예정이다. 각 자
회사는 신임 대표가 부담하는 즉시 지

주사의 기본 전략에 맞춰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올해 연말까지
임기가 남아있지만 임 내정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는 뜻에서 사의 표명을
했다. 후임 은행장은 임 회장 취임 직후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선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회사 CEO 추천은 우리금융
의 자회사들의 업종 특성을 감안해 경
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임종룡 회장 내정자의 의지가 반영됐
다는 평가다. 또한 지주사를 ‘전략 수립,
시너지 창출, 조직문화 혁신’에 주력하
는 방향으로 정예화했다.

먼저 총괄사장제(2인)와 수석부사장
제를 폐지했고, 부문도 11개에서 9개로
축소해 지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지
주 임원 역시 11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6명을 교체 임명했다. 지주 전체 인력은
약 20% 정도 감축하고 회장 비서실(본
부장급)도 폐지했다.

또한 지주 부문장(9개)에 본부장급
인력 2명을 과감히 발탁 배치하는 등 조

직활력 제고를 위한 세대교체형 인사도
실시했다.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조직문화혁신
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문화혁신TF(회
장 및 자회사CEO 협의체)’를 회장 직
속으로 신설했다. 해당 TF조직은 앞으
로 그룹 차원의 기업문화혁신(인사 및
평가제도 개편, 내부통제 강화, 경영 승
계프로그램 등) 전략을 수립해 실행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이번 첫 조직개편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미래성장 추진력
강화로 미래사업추진부문도 신설했다.
증권사 인수 등 비은행 강화전략을 추
진하고 그룹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역할, 금융권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른
ESG경영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그룹 개혁의 촉
매제가 될 과감한 경영진 인사와 조직
개편을 조기에 마무리한 만큼 새로 출
범하는 즉시 신임 회장이 그려온 경영
로드맵대로 빠르게 영업속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 또한 지주 전략 중심에서

자회사 영업 중심이라는 방향에 맞춰
은행 조직을 영업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실시
했다. 영업조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영업총괄그룹은 폐지하는
대신 국내영업부문과 기업투자금융부
문 등 부문 2곳으로 재편했다. 각 부문
산하에 5개, 4개의 주요 영업 관련 그룹
들을 배치했다. 다만 부문장 자리는 각
각 개인그룹장과 기업그룹장이 겸직 수
행토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그룹과 연금사업그룹, 기관
그룹을 신설해 신성장기업 대상 영업
및 기관 영업 시장, 연금시장 등의 영업
력을 확충하고 상생금융부를 새롭게 신
설해 금융소외계층 전담 상품과 서비스
지원을 집중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이날 조직개편을 통해
임원 수를 19명에서 18명으로 감축하
고, 총 18명 중 12명을 교체 배치했다. 3
개의 그룹장 자리에 영업실적이 뛰어난
여성본부장 등 영업 현장 중심의 본부
장급 인력을 전진 배치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1면 ‘유통가, 사명고체 바람’서 계속

“피해자 존중 하면서 韓·日 미래발전 모색한 결과”

尹 대통령, 강제징용 해법 관련 발언
“日, 과거 침략자서 現 협력 파트너로
양국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그동
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
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
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
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어제 강
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
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
별법을 제정해서 7만8000여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3·1절 기념사에서에서도 말씀드렸
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

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
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
류 현황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
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명에 달했
다.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
국을 꼽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
의 22%가 넘는다”며 “한일 간의 미래지
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전
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양국의 미
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
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달라”며 “경
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
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한국야쿠르트 지운 hy 유통 전문기업 새출발

또 커피전문점 ‘폴바셋’과 중식당
‘크리스탈제이드’ 등 외식 사업도 영위
하고 있다.

CJ제일제당도 과거 비슷한 이유로
사명 변경을 검토했지만, 현재는 중단
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식품업계가 우
유면 우유, 과자면 과자 등 한정된 카테
고리의 상품들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신사업과 해외 사업 등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때문에 사명에 대한 고민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hy의 경우 지난 2021년 50년 넘게
사용한 사명 ‘한국야쿠르트’를 지우고
유통전문기업으로의 새 출발을 선포하
며 사명 변경을 단행한 바 있다.

발효유 사업 외에 프레스매니저를
기반으로 한 물류 사업과 유산균 기
술력을 활용한 균주 B2B 사업을 강
화하는 과감한 업의 변화를 선택한
것이다.

회사 인터넷쇼핑몰도 ‘프레딧’으로
개편하고 판매 품목을 타사 제품까지
넓혔다. 현재 HMR, 신선식품, 이유식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데, 배
송망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의 입점 문
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조직과 브랜드 재정비의 일환으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도 있다. 대상라이
프사이언스는 지난해 종로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대상웰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새 사명인 ‘대상웰라이프’는 건강
함, 좋음을 뜻하는 웰(Well)과 삶을 뜻
하는 라이프(Life)를 합친 이름으로,
고객이 건강한 삶을 꾸려가는 여정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철학과 지향
점을 담았다. 사명 변경을 통해 소비자
에게 직관적으로 기업 철학을 전달하
고 친숙한 기업 이미지를 다진다는 복
안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소하천 정비때 경관 훼손 OK?… ‘환경보전법’ 우려 목소리

환경부,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시행
“이·치수, 재해예방 사업이 대부분
경관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아”
“난개발에 생태계 파괴” 지적도

소하천 등 치수·정비 사업이 자연경
관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환경부 심의
대상에서 빠져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
부는 올해 들어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등도 모두 조건부 동의했다. 환경
부가 연이어 개발 사업에 손을 들어주면
서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 지키미로서
의 역할이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

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
결,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연경관 영향 심의는 경관적 가치
가 높은 곳이 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훼손되거나 시야가 차단되는 것을 예
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와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소하천 정비 사업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는데 불필요하게 자연
경관영향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사 구간이 하천 중심 길이로
10km 이상인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은 자
연경관영향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19~

2022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 심의
건수는 연평균 25건, 하천정비 사업은
연평균 100건 정도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소하
천 정비 사업의 경우 이·치수를 위한 하
천 공사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대부
분”이라며 “이러한 사업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하천 정비 사업도 물 관리
가 필수인데 이번 심의 대상에서 빠지
면 하천 주변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과 미관 훼손은 물론 수 생태계가 파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환경부가 개발과 경제 논리
에 밀려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경관 영향 심의 등을 완화하는 음
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달 27일 환경부는 강원 양양군
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
도)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
건부 동의’했다. 이로써 설악산국립공
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사실상 추진
이 가능해졌다.

이후 환경단체는 케이블카 설치 과
정에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속적인
소음 등이 야생 생물에 피해를 줄 것이
라며 반대했다. 멸종위기종인 산양과
함께 법정보호 식물, 특이 식물 등이 사
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
경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환경부가 ‘환경
파괴부’로 거듭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반도체업계, FPI 등 주요 소재 공급망 리스크 해소 기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전경련 등 경제단체, 규제완화 환영
산업계 긍정적 “경쟁력 도움될 것”
소재독립 순항… 실효성 지적도

일본 수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반도체 업계도 모처럼 외교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 노력이 성과를 이룬 상황에서 그렇다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 강국인 일본과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 기대감도 적지 않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과 통상 절차를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으로 합의를 시작했다.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겠다는 것. 일본은 당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 수출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했었다.

반도체 업계가 주요 소재를 다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당시 규제됐던 품목은 포토레지스트(PR)와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으로, 첨단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경제단체도 입을 모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6일 성명을 내고 한일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특히 전경련이 모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은 모습이다. 전경련이 ‘국경농단’ 사태 이후에는 공동 성명에서도 이름을 앞세우지 못해왔지만, 이번 성명에서는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전경련은 한일 관계 악화 속에서도 꾸준히 일본 경제계와 대화 창구를 유지해왔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일본 경제단련과 함께 기금을 조성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소재 독립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했다. 실제로 불화수소는 솔브레인, SK머티리얼즈가 빠르게 고순도 양산에 성공하면서 의존도를 크게 줄였다. 포토레지스트도 우회 수입 길을 열었고, 국내에서 동진세미켐이 양산에 도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위협 요인을 줄였다는

데에는 긍정적인 분위기다. FPI의 경우는 여전히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소재 수급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라 수출 규제 해제로 인한 큰 이익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일간 경제 협력도 재개되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소니 요시다 겐이치로 회장 등 경영진이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을 찾았다. 지난해 경계현 사장이 소니를 방문했던 바, 소니도 이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풀이된다.

소니는 삼성전자와 이미지센서 분야에서는 경쟁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스마트폰과 IT 분야는 물론, 휴대폰과 함께 만든 전기차 브랜드 ‘아릴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삼성전자 메모리와 파운드리, OLED 디스플레이 기

술을 배재하기 어렵다.

일본 현지에도 메모리 업체인 키옥시아가 있지만 삼성전자 메모리와 비교하면 성능과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전기차에 필수적인 배터리 분야에서도 삼성SDI가 세계 최초로 전고체 파인릿 라인을 마련하는 등 경쟁력이 높다. 소니가 참여한 ‘라피더스’가 2나노 파운드리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미래차를 만들기 위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텐소 등 현지 업체보다는 삼성전자가 ‘디지털 콕핏’을 통해 우월함을 증명할 상태다.

소부장 육성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는 남는다. 여전히 완벽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7일 ‘극일’ 관련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는 소부장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 이어 정책 금융과 ‘반도체 펀드’ 조성 계획을 밝힌 상황, 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정책대화 상황 따라 WTO 결정”

산자부 불확실성 제거, 안정화 무게
“양국 수출규제 현안 완전해소 추진”

한일 양국이 지난 2019년 7월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복구하기로 함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지난 3년여간 반도체 소부장 대일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만큼 실익보다는 기업 불확실성 제거와 공급망 안정화 효과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간 현안 상황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회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관련 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의 수출 규제 해빙 모드에 따라 업계 기대감은 높아졌으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와 업계 노력으로 일군 소부장 부분 공급망 강화와 산업계 생태계 변화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등으로 소부장 공급망이 강화됐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실제로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에 수출규제의 해소를 통해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사항에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기 전 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 것이 굴욕적인 결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한 이후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여전히 패널 구성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던 상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은 한일 수출규제 현안에 대한 원상복구 협정이 진행되는 기간 분쟁해결 절차 진행을 잠정 중지하는 것이며 WTO 제소 철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을 원상복구하겠다는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일본측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조속히 진행해 수출규제 현안 완전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만,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 진행 상황에 따라 다시 WTO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내 금융기관 중 최고

Aa2

Moody's 국제신용등급

자본시장의 숲을 성장시키는

한국증권금융

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증권사 한 곳 한 곳이

모두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본시장의 숲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파트너,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410km 압도적 주행거리… 글로벌 ‘소형 SUV’ 주도권 잡는다

현대차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64.8kWh 배터리, 150kW 모터 장착
FCA·HDA 등 첨단기술 기본적용

BMW iX1-310km, 벤츠 EQA-300km
동급차량 주행거리와는 비교불가
31일 서울모빌리티쇼서 실차 공개



현대차 디 올 뉴 코나 EV 실내.



현대차 디 올 뉴 코나 EV.

글로벌 전기차 선도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국내에는 물론 수입 완성차 업체들이 소형 전기 SUV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와 디자인, 실내 공간성, 첨단기술 등을 강화한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으로 소형 SUV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선보인 소형 SUV의 주행거리를 훌쩍 뛰어넘는 등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돋보인다.

7일 현대차에 따르면 코나 일렉트릭은 64.8kWh 배터리와 150kW 모터를 장착하고 국내 산업부 인증 기준으로 동

급 최대 수준인 410km 이상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달성할 전망이다. 신형 코나는 신차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전기차 모델을 먼저 디자인했다. 덕분에 공력계수(공기저항계수·Cd)가 동급 SUV 대비 우수한 0.27을 기록했다.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경쟁 제품 대비 압도적인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BMW 코리아가 3월 국내 출시 예정인 신차 iX1은 배터리 1회 충전으로 310km 주행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EQA의 개선 모델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EQA는 300km 초반의 짧은 최대 주행가능거리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국내 출시한 전기차 모델 XC40 리차지는 한번 충전에 337km를 달릴 수 있다.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푸조 e-2008는 1회 충전시 복합 주행거리가 260km에 불과하다.

또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은 현대차의 첨단 기술을 대거 탑재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

A) ▲차로 유지 보조(LF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을 기본 적용했다. 220V 외부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실내·외 V2L(Vehicle to Load),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등도 탑재된다. 수납 공간을 늘리기 위해 27L 용량의 프렁크(프론트+트렁크)도 들어갔다.

코나 일렉트릭은 신규 EV 전용 모드가 최초로 구현돼 관련 정보와 기능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규 EV

전용 모드는 ▲차박 시 실내 조명 밝기에 의한 눈부심 불편을 줄여주는 ‘실내 조명 최소화’ ▲급속 충전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배터리 컨디셔닝’ ▲충전 잔여량에 따라 주행가능거리를 중심으로 공조를 최적화해주는 ‘주행거리 중심 공조제어’ ▲배터리 잔량과 목적지까지의 이동 거리를 분석해 충전이 필요한 경우 최적의 충전소를 경유지로 안내해주는 ‘EV 경로 플래너’ 등 전기차 특화 기능이 적용됐다.

현대차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코나 일렉트릭 실차를 최초 공개한다. 코나 일렉트릭은 국내는 올해 4월, 유럽은 3분기, 미국은 4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와 맞물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높아지면서 높은 활용도와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소형 전기 SUV가 친환경차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외자기업에 훨씬 더 큰 사업기회 줄것”

● 차이나 뉴스&리포트

외국인 투자자 잡기에 열 올리는 中
미중 무역분쟁, 엄격한 방역조치에
기업 투자 ‘신중’… 반응 ‘미지근’

중국이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 잡기에 나섰다.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대외개방을 강조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큰 사업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에서 퇴임 전 마지막 업무 보고를 통해 “우리는 외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외자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획기적인 외

자 프로젝트의 시작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대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가진 중국은 외국 기업들에게 훨씬 더 큰 사업 기회를 확실히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한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프로젝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대일로 관련국 등과는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 외자기업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방정부별로도 외자 유치 프로젝트를 더욱 강화한다.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중국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기업들의 신

뢰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미중 무역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엄격한 방역조치 등으로 외국기업들은 중국 투자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상무 자문역을 맡았던 허웨이원은 “CPTPP이나 일대일로를 강조한다고 해서 중국이 다른 주요 국가와의 관계를 조정하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며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투자를 안정시키고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올해 새 지도부의 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며 “총리직을 이어받을 리창 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신화·뉴시스

상하이 당서기가 테슬라 기가팩토리 같은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중미국상공회의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처음으로 투자 대상지역 상위 3위 안에 들지 못했다.

ING 아이리스광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약 5%”라는 예상보다 낮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는 중국이 대외 시장이 약화됐음을 보여주며, 중국의 수출 관련 산업과 기업들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 물가 2%대까지 긴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경기 우려했다면 금리인하 선택
‘물가담당’ 의무에 인상·동결 결정”

“금리인하는 소비자물가가 2% 목표대에 접근했다는 확신이 들 때 논의해야 한다. 지금 상황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전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4.8% 상승해 4%대에 진입했다.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목표치(2%대)에 수렴할 때까지는 긴축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다만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최종 기준금리를 3.7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의견이었고, 1명은 3.5%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총재는 “지난 1년반동안 금리를 3%포인트(p) 정도 올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물가경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결정하게 됐다”며 “오는 4월 금통위가 열리는데, 미국의 등 주요국의 금리결정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중국의 경기회복,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만큼 지켜보고 올릴지, 동결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금리동결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은은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의무가 있는 만큼 의

무 하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의견대로 경기를 우려했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선택했을 텐데, 금리를 올리느냐 멈추느냐에서 결정했다”며 “금리결정 전 정부정책을 충분히 듣는 등 사전협의는 최대한 많이 하되, 한은은 물가를 담당하는 기관이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하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리동결 이후 원달러환율이 변동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향후 물가에 대해 3월 이후부터는 4.5% 이하로 내려간 뒤 연말에는 3% 초반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유리 기자 yul115@

KCGI, 한진칼 투자로 5640억 차익 실현

» 1년 ‘주총시즌, 행동주의 펀드’서 계속

행동주의 펀드들은 경영권 확보가 안 되면 단기의 수익만 챙기고 떠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KCGI 등 행동주의 펀드들은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다.

실제로 KCGI는 공동 투자자들과 한진칼에 총 3614억 원을 투자했다가 지분을 호반건설에 넘기며 5640억원 규모의 차익을 실현했다.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700억원 규모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실질적으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행

동주의가 단기 이익을 위해 기업을 공격하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불합리한 지배구조 개선을 내걸고 나타났으나 단기 주가를 높여 수익을 내는 약탈적인 모습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동주의 펀드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는 배당 확대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줄어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비판을 피해 가려면 성과 창출의 핵심으로 내걸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피투자 기업에 대한 가치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관희기자 wkh@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sk_inc_official

sk_inc_official 따르릉~따르릉~ 달콤하게 출발알~!
#sk #어스윳어스 #move

sk_inc_official 플로깅으로 지구에 달콤하게 줍줍 :)
#어스윳어스 #green #플로깅

sk_inc_official 라벨은 떼고, 스윳
#sk #어스윳어스 #waste #올바른_분리수거

sk_inc_official

sk_inc_official 튼튼~한 걸음! 스윳~한 걸음!
#energy #계단오르기 #스윳한걸음

Earth with Us♥

우리에게도 스윳 지구에게도 쏘-스윳

지구와 평생을 함께하기 위한
일상 속 작은 실천,
Earth with Us(어스윳어스)

우리 모두의 실천이 계속되어
세상 스윳한 지구가 되는 그날까지
SK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수·황교안, 김기현 사퇴 압박… “전대 끝나도 진상규명”

국민의힘 전대 투표 종료

땅 투기, 대통령실 개입 의혹 지적
김 후보 “제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
尹 대통령 전대 참석… 표심 귀추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까지 하루 남은 7일 주요 당권 주자들은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경쟁자 견제에 집중했다. 현안별로 당 대표 후보 간 치열하게 다투는 한편, 결선투표를 고려한 연대도 이어졌다.

안철수·황교안 당 대표 후보는 7일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및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연루를 이유로 ‘김기현 당 후보가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투표 마지막 날에 사실상 ‘연대’를 선언한 셈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전당대회는 당의 비정상상을 정상화시키는 당원들의 축제여야 하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후보 관련 땅 투기 및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당 도덕성, 윤석열 정부 공정성과 직결된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6일 나경원 당협위원장 사무실에서 꽃다발을 받고 밝게 웃고 있다.



안철수,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했다.

김 후보에게 “(땅 투기 의혹 및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두 사건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한 이들은 “김 후보가 이미 국민의힘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다. 김 후보는 즉각 사퇴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두 후보가 ‘반(反)김기현’ 연대로 한 목소리를 내며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김 후보가) 만약 사퇴하지 않으면 이번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선거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 모든 증거를 갖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도덕성을 바로 잡고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위해 함께 힘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두 후보는 결선투표까지 고려해 ‘반(反)김기현’ 연대를 구축한 것이라는 해석은 부정했다. 황 후보는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 정의와 자유, 당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진 것을 그대로 뒤야 겠나”며 “이 문제가 유야무야 묻히면 다시 반복될 것이고, 우리나라 자유민

주주의는 더 나빠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 없이 반드시 이 일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까지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하람 당 대표 후보도 비상대책위원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나. 사실은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물러나야 하며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는 뜻에서 (한 것이 아니겠나)”라며 “(그런) 뜻에서 저화와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 캠프는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오후 고위공

직자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황 후보도 “수사 외에 징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김기현 후보는 투기 및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사퇴하라는 주장에 “당원들이 역정 낸다”고 맞섰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제가 관련한 것도 아니고 제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은 뒤 이같이 말했다.

당 대표 후보직 사퇴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김 후보는 “앞뒤 가리지도 않고 무작정 김기현 사퇴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는 말이나. 그러니까 (당원들이) 지도자 자격이 있느냐는 평가를 다시 되새겨보게 된다”며 맞섰다.

한편 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다. 당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에 대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인 만큼 당권 주자들은 표심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더민주, ‘李대표 체제 존속’ 집안싸움 조짐

“분열 도움 안돼” vs “사법리스크 발목”

〈친이재명계〉

〈비이재명계〉

당 지지도 하락세… 계파갈등 기류 부어
지도부 소통 의지에도 명분 쌓기 치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내홍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체제 존속을 두고 친(親)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의 명분 쌓기가 치열하다.

7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떨쳐내지 못하는 한, 내년에 있을 22대 총선 패배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비이재명계인 조웅천 민주당 의원은 7일 BBS라디오에 나와 “정순신 사태,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 큰 이슈다. 우리 사회가 갖는 모든 모순을 축약적으로 가진 이슈”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를 말로만 하지만 완전히 거꾸로 간 것이다. (국민들이 정부에) 학교폭력을 책임 지지 않고 거짓말로 어떻게든 모면하려 하고 또 검사나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경찰 장악이란 이슈, 강제징용 제3자 배상 문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대놓고 개입을 하다 녹취까지 나왔는데, 3단 콤보가 나왔으면 정부여당은 그로기 사태를 면치 못해야 한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오나”라고 반문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서울에선 정당 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도가 국민의힘에 비해 반토막나고 있다고 말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밀집한 수도권 의원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취지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 인터뷰를 통해 표집한 자체조사(표본오차 ±3.1% 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9.4%,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누리집 참조) 결과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은 29%인 반면 서울 거주 응답자의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21%로 더 벌어졌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청년당원들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당직자 전면 교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민주당 혁신회의 설치 ▲선거제도 개편안 추진 ▲당대표급 공통공약추진단 운영 ▲국민 참여 당대표 타운홀 미팅 등 5대 실천과제를 제안하며 지도부의 이재명 색채 지우기와 당의 혁신을 요구했다.

친이재명계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표결을 아예 거부하는 안을 제시하고 당의 동력을 모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관철하자고 주장한다. 20대 대선과 지난해 전당대회를 거쳐 당의 구심점으로 거듭난 이 대표 체제를 대신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 대안이 없고 분열을 가속화해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27일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난주 쉬어갔던 만찬 모임을 7일부터 이어가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비명계 인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을 만나 당 상황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의원들 선수별 모임도 이어질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尹 “해외긴급구호대 헌신과 노고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튀르키예 지진피해 현장에 긴급구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와 민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여진과 추위가 이어지는 불안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에 전념해 온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며 밝혔다.

/뉴스시스

박홍근 “원내대표 동시퇴진, 확정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표단계 아니지만 공감대는 이뤄”

양당의 원내대표가 오는 4월말 퇴진에 합의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공식 발표 단계까진 아니지만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5월 두 번째 주까지 임기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8일까지로 알고 있다. 저는 벌써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데 주 원내대표가 잔여 임기만 하고 마지면 저는 또 네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달 가량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국회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쪽(국민의힘)도 3월 8일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원내대표의 임기를 내부적으로 승인하지 않겠다. 그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두 사람은 4월 임시회까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마무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공식적으로 이걸 합의해서 발표할 그런 상황까진 아니고 그런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게 특정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가 된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우수상
에브리틱 팀 윤준성 김용운 양정구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창업 지원도 취업 지원도
하나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바로가기

하나금융그룹 ESG 캠페인



.....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하나금융그룹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전국 협력 대학이 함께
지역 청년들의 차별 없는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2만 달러… 강달러에 7.7% 감소

한은 ‘2022년 4분기 국민소득’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 영향
원화 기준 4420만원, 4.3% 올라
실질 국내총생산은 2.6%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에 머물렀다. 1년 전과 비교해 7.7% 감소한 수준이다.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미국 달러화 기준 전년 대비 7.7% 감소한 3만2661달러(약 4220만원)로 집계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해 동안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평균 국민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 지표다.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 영향이 컸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1292원으로 1년 전(1144원)과 비교해 12.9% 상승(원



최정태(왼쪽 두번째)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이 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2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최정태 국민계정부장, 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이상협 국민소득총괄팀 과장. /뉴시스

화 가치 하락)했다.

때문에 원화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4220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4.3% 올랐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7.7% 감소했다.

다만 한은은 이날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734달러를 기록하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통상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은 3만달러에서 4만달러까지 평균 5

년 걸린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향후 2~3년간 성장률이 연평균 2%내외로 상승하고, 지난해 이례적으로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10년 평균인 1145원으로 유지돼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성장에 진입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소득 4만달러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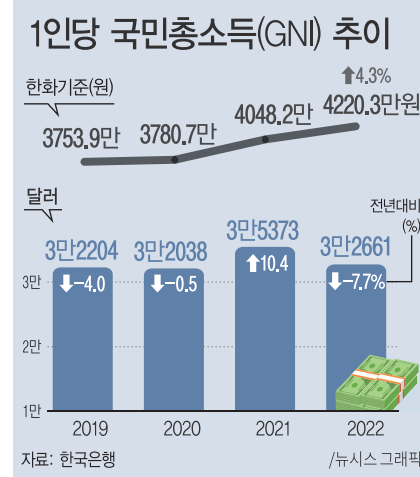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6% 증가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1.4% 올라 1년 전(6.9%)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4.2%로 전년(3.8%)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지출항목별로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각각 -3.5%, -0.5% 감소하고, 수출(3.2%)과 수입(3.7%)의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민간소비가 4.3%로 소폭 늘었다.

다만 실질 GDP를 분기별로 보면 1분



기(0.6%), 2분기(0.7%), 3분기(0.3%)를 나타내다 4분기 0.4%로 역성장했다.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2분기(-3%)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지난해 4분기 GDP가 감소한 이유는 민간소비와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는 가전제품, 의류 및 신발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줄며 전분기 대비 0.6% 감소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핀테크 계좌개설 허용 등 금융권 진입장벽 완화 필요”

핀테크 금융권 진입 완화 간담회 권대영 “실질경쟁으로 파이 키워야”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실질 경쟁을 촉진시키고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 핀테크 기업들의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의 금융권 진입 촉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을 확대하고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이날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업 전반의 진입장벽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

시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우선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펙트럼(핀테크 라이선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핀테크에 특화되고 있는 분야(소상공인, 금융이력 부족자)에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특화은행과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 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수행하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결제를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된 계좌 개설을 허용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해 달라라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률이 높은 자동차보험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예금·보험에 이어 펀드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의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중 핀테크 금융업 진입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오는 14일에는 2차간담회: 데이터 분야의 이슈(마이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해 논의하고, 21일에는 3차간담회: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빅데이터, 온라인판매장)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은행

외식업자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캐시백

하나은행은 외식업자와 상생하기 위해 ‘외식업자 이자 캐시백(CASH BACK) 프로그램’을 1년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3고 현상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은행의 수익 환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을 폭 넓게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외식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최근 식자재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 및 금리인상 등으로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종을 먼저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시행일 기준 외식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가 보유 중인 기업대출(최대 1억원) 잔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최대 1백만원)을 캐시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월 대출이자를 정산 납부중인 NICE CB 신용평점 779점 이하인 외식업 자영업자는 대출 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동안 매월 나눠 하나머니로 캐시백 받게 된다.

이번 ‘외식업자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하나은행에 기업대출을 보유중인 전국 외식업 자영업자 모두에게 일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전산테스트를 거쳐 오는 4월 중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식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작은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IBK기업은행

‘해내리대출’ 통해 소상공인 금리지원

IBK기업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지역 특산물 생산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해내리대출’을 통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대 1.2%포인트(p)의 대출금리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해내리대출’은 기업은행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 상품으로 2020년 1월 출시 후 현재까지 약 5조 8000억원이 공급됐다. 원자재 구입이나 인건비 등 운영자금과 더불어 시설투자 목적으로도 지원되는 게 특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신한은행, 업계 대표 ‘금융소비자보호 사례’ 공유

금감원 실태평가서 ‘양호’ 등급 은행업권 대표로 우수사례 발표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한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 은행업권을 대표해 13개 은행 소비자보호 임원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우수사례 발표는 ▲일관된 고객중심 경영을 통한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상품 완전 판매 준수를 위한 활동 ▲은행권 최초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스 조직 운영 ▲같이 성장 성과 평가제도 도입 ▲금융소비자 자산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 ATM 거래 중 휴대전화 통화, 선글라스·헬멧 착용 등 이상행동을 탐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신한은행 류동우 소비자보호부장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신한은행

지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AI 이상행동탐지 ATM’을 전국 영업점에 확대 운영한 점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는 은행이 흔들림 없이 추구해야 할 가

치로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분야”라며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활동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해외여행 상승기류 만난 항공사… LCC, 완벽 흑자 노린다

2월 국제선 운항률 64% 회복
LCC, 수요 대응위해 증편 분주
에어부산, 부산~가오슝 재운항
진에어, 인천~마카오 매일 운영
티웨이, 시드니 노선 특가 행사

일본·동남아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을 필두로 국내 항공업계의 국제선 정상화가 본궤도에 올랐다. 겨울 여행 성수기를 거치며 폭발적인 여객 수요가 수익을 견인한 덕분이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LCC)들은 증편과 각종 프로모션으로 안정적인 흑자 유지와 전환을 노리고 있다.

7일 국내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이전 운항률의 70% 가까이 회복했다고 보고 있다.

월별로 국제선 여객 수를 보면 ▲9월 121만4867명 ▲10월 162만7206명 ▲11월 207만2764명 ▲12월 278만7590명 ▲2023년 1월 323만8575명 ▲2월 323만9930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178만2313명으



1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로 2019년 1월의 291만명 대비 62% 수준까지 회복했고, 전년과 비교해서는 1108.9%(약 12배) 증가했다. 2월 국제선 운항 편수도 1만7450편(출·도착)으로 2만7365편을 기록한 2019년 동월과 비교해 63.7%까지 회복한 모습이다.

항공업계는 일본을 비롯한 국제선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증편을 서두르고 있다. 에어부산은 오는 29일부터 부산~가오슝 노선을 재운항하고, 다음달 20일부터는 부산~타이베이 노선의 증편 운항할 예정이다.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각각 이달 16일부터 제주~시안, 대구~엔지를 운항할 예정이다.

또한 진에어는 다음 달 23일부터 인천~마카오 노선을 매 1회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진에어 관계자는 “일본은 야간 비행으로 여객을 운영할 수 없지만 야간 시간을 기준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관광객들은 마카오는 최적의 도시”라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티웨이항공의 경우는 장거리 노선 운항도 순항 중이라 성장이 기대되는 항공사로 꼽힌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연말에는 인천~시드니 노선 신규 취항으로 ‘LCC의 장거리 노선 도전’으로 이목을 끌었다.

티웨이항공은 신규 특가행사인 ‘월간티웨이’를 선보이며 정기 프로모션

을 진행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시드니 노선의 경우는 인천~시드니 47만1280원부터 판매돼 대형항공사(FSC)보다 20% 가량 낮은 운임으로 항공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LCC들의 흑자 유지·전환 전망은 밝은 상태다. 에프엔가이드는 진에어는 올해 연결기준 매출액 1조1065억원, 영업이익 85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항공은 올해 매출액 1조4641억원, 영업이익 1277억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분기 흑자전환에는 실패한 에어부산도 올해 매출액 8078억원, 영업이익 969억원

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치가 나온 상태다.

여기에 지난달 28일 항공운항증명(AOC)을 재발급 받은 이스타항공까지 오는 26일로 재운항 일정을 확정하고 회원가입 이벤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고객 맞이에 나선다.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는 국내선 김포~제주부터 시작하지만 향후 국제선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진에어 관계자는 “일본 무비자 입국 허가 이후로 일본 여행이 폭발적으로 여객 수요를 차지했고, 앞으로 중국까지 단체 비자 관광이 허가된다면 수요 회복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항공업계는 1분기와 3분기는 흑자, 2분기와 4분기는 적자가나는 경우가 많다”며 “향후 각 항공사의 흑자 전환 규모는 두고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한국이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 허용국에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요를 잡지 못했지만, 항공업계는 빠르면 3월 중국 양회 이후 방한 단체여행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명성 “CCS 사업 강화… 탄소중립회사로 거듭날 것”

〈탄소 포집·저장〉

SK어스온 사장 인터뷰

파이낸셜 스토리 실현 노력 구체화
7년내 200만톤 CCS 저장소 확보

SK이노베이션의 석유개발사업자회사 SK어스온 명성 사장이 “석유개발(Upstream)과 친환경(Green)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탄소중립회사(Carbon Neutral Company)’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명 사장은 최근 SK이노베이션 계열의 공식 보도채널 스키노뉴스(SKInno News)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는 SK어스온의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 파이낸셜 스토리(Financial Story)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탄소 솔루션 제공자(Carbon Solution Provider)’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SK어스온은 2021년 10월 1일 독립



명성 SK어스온 사장

/SK어스온

법인으로 출범하며 석유개발 및 CCS(Carbon Capture & Storage, 탄소 포집 및 저장) 전문 기업으로서의 파이낸셜 스토리 실현을 가속화했다. 기존 석유개발 중심의 사업 구조를 친환경 영역으로 확장해 두 개의 축(Upstream & Green)으로 전환하는 것이 파이낸셜 스토리 달성을 위한 SK어스온의 핵심 전략이다.

이에 따라 석유개발 영역에서는 올해

하반기 운영권 사업 최초로 중국 17/03 광구의 원유 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베트남 15-1/05 광구의 2025년 원유 생산 개시를 위해 베트남 정부 개발 승인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탄소중립회사로 나아가기 위한 친환경 영역의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SK어스온은 탄소감축을 위해 ‘원유 생산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저감’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지중에 영구히 저장’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중국 17/03 광구에는 발전기 배기가스의 폐열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설계를 반영했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30%가량 저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SK어스온은 지난 40년 간의 해외자원 개발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에서 CCS 저장소 발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30년 200만 톤 규모의 저장소를 확보해, SK그룹 및 국내외 타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까지 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50년 국가의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명 사장은 “CCS 저장소를 탐사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역량은 석유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지하구조 평가기술과 거의 동일하다”며 “탄소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는 SK어스온이기에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탄소 솔루션 제공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명 사장은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해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나해 발족한 위기대응위원회를 통해 유가(油價)의 글로벌 수요 등에 대해 예상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준비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LG전자는 최근 틱툰에 신규 씨앗키트 3종을 출시했다.

LG전자 ‘틱툰’

채송화·오발바질 등 씨앗키트 3종 출시

LG전자가 틱툰에 반려 식물을 더한다.

LG전자는 최근 틱툰에 신규 씨앗키트 3종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틱툰 미니용으로도 함께다.

새로운 씨앗키트는 채송화, 쫄쵸맨드라미, 비올라 등 꽃 3종으로 구성된 ‘컬러스 오브 러브2(Colors of Love 2)’ 패키지와 오발바질, 딜, 루꼴라로 구성된 ‘이탈리안 허브2(Italian Herb 2)’ 패키지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컬러스 오브 러브2 패키지 4만2000원, 이탈리안 허브2 패키지 3만6000원이다. 틱툰 미니 고객은 딜과 루꼴라로 구성된 ‘향긋하고 소중한 패키지 B’를 통해 새 씨앗키트를 즐길 수 있다. 가격은 2만4000원이다.

/김재웅 기자

SK머티리얼즈, 3900억 들여 美 탄소포집 기업 인수

CCUS 혁신기술 보유 ‘8리버스’
3억달러 추가투자로 경영권 확보

SK(株) 머티리얼즈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혁신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8리버스 경영권까지 인수한다.

SK(株)머티리얼즈는 6일 이사회를 통해 8리버스에서 3억달러(한화 약 3900억원)를 추가 투자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SK(株)머티리얼즈는 지난해 3월 8리



버스에 1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CCUS 기술을 활용해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 이번엔 추가 투자를 통해 경영권까지 확보하면서 친환경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8리버스는 99% 이상 이산화탄소가

포집된 클린 전기와 블루 수소를 생산하는 특허를 갖고 있다. 천연가스 및 석탄을 원료로 별도의 설비 없이 내재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기술과,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냉각해 액화 상태로 만들어 분리하는 방식으로 블루 수소를 생산한다.

SK(株)머티리얼즈 측은 “탄소감축이 글로벌 아젠다가 됐지만 신재생에너지 만으로는 기저 발전을 대체하기 어렵

고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방안은 비용이 비싸다는 한계가 있다”며 “8리버스는 혁신적 기술로 비용 경쟁력을 대폭 개선해 탄소감축의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욱 SK(株)머티리얼즈 사장은 “이번 인수로 8리버스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우리의 사업 역량이 더해져 더 큰 도약을 할 것”이라며 “탄소감축은 인류의 지속가능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지상과제로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며 전 세계 넷제로 가속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SK케미칼, 10조 규모 재활용 원료·페트시장 선점 박차

中 슈에社 재활용 사업 자산
1300억에 양수도 계약 체결

화학적 재활용 원료·페트사업
세계 최초 상업화 된 설비 확보

SK케미칼이 세계 최초 화학적 재활용 원료(recycled BHET, r-BHET),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 생산체제를 갖추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

SK케미칼은 이사회를 통해 중국 그린소재 전문업체 슈에(Shuye)사의 화학적 재활용 원료 및 화학적 재활용 페트 사업 관련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인수금액은 약 1300억원 규모다.

SK케미칼이 인수하는 슈에의 자산에는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재활용 원료를 생산하는 해중합(Depolymerization) 공장과 여기서 생산된 'r-BHET'를 투입해 다시 페트를 만드는 'CR-PET' 생산설비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SK케미칼은 세계 최초로 상



화학적 재활용 원료와 화학적 재활용 페트로 제작한 생수병

/SK케미칼

업화된 폴리에스터 화학적 재활용 원료와 제품 생산설비를 확보해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슈에의 자산 인수를 통해 SK케미칼은 국내 기업들 보다 약 1~2년 빠르게 해중합 기술이 적용된 화학적 재활용 원료와 제품의 상업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폐페트 등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가 많은 중국 현지 생산을 통해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투자를 통해 SK케미칼은 화학적 재활용 원료, 화학적 재활용 페트, 화학적재활용 코폴리에스터(CR-Copolyester)로 이어지는 리사이클 플라스틱 밸류체인을 완성해 핵심사업인 코폴리에스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우드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재활용 페트 시장은 약 970만톤 규

모로 현재는 기계적 재활용 페트(MR-PET) 시장이 대부분이다. 'r-BHET'와 같은 원료 부재로 시장형성 이전인 화학적 재활용 페트 시장은 탄소배출, 플라스틱 사용 및 재활용 규제, 순환경제로의 소비자 선호도 변화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해 2030년 460만톤(약 10조 원) 시장을 형성할 전망으로 이번 자산 인수를 통한 SK케미칼의 성장이 기대된다.

SK케미칼은 코폴리에스터 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화학적 재활용 원료, 화학적 재활용 페트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시장 형성 초기부터 사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SK케미칼은 화학적 재활용 페트의 투명성과 외관, 안정성 등의 뛰어난 물성을 앞세워 국내외 식음료병과 식품포장 필름용 시장에 소재를 공급함과 동시에 물리적 재활용 페트 사용이 어려운 산업용 특수 섬유와 같은 고부가 가치 시장 진입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10조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화학적 재활용 원료는 독립된 상품으로

재활용 제품 생산을 원하는 폴리에스터 제조 업체들에 대한 외부 판매도 병행할 계획이다.

SK케미칼은 확보된 생산 및 파일럿 설비 운영을 통해 자체 보유기술을 빠르게 검증해 국내 해중합 설비 투자를 가속화하고 지속적으로 사업파트너를 발굴해 유럽, 북미 등 글로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SK케미칼은 리사이클 플라스틱 산업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r-TPA' 해중합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r-TPA'는 폐페트의 불순물 제거가 용이하고 생산설비 보완 없이 고품질의 재활용 플라스틱 생산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 원료이다.

안재현 SK케미칼 사장은 "화학적 재활용 원료 조기 확보는 리사이클 사업을 통해 파이낸셜 스토리 확장의 일환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글로벌 확장과 리사이클 사업모델 고도화를 통해 세계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LGU+, 와디즈와 '일상비일상의틈' 펀딩제품 판매

LG유플러스는 국내 최대 펀딩 플랫폼 와디즈

와 손잡고 MZ세대 커뮤니티 '일상비일상의틈byU+(이하 틈)'에서 펀딩 제품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정수현 LG유플러스 Consumer부문장(가운데)과 신혜성 와디즈 대표(왼쪽 세번째) 등 양사 관계자들이 틈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LG유플러스

SK(주), 이사회 다양성·전문성 강화 나서

박현주 신규 사외이사 후보 의결
배당기준일 변경 위해 정관 변경도

투자전문회사 SK(주)가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SK(주)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신규 사외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의 건등을 상정한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SK(주)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1세대 여성 미국 변호사인 박현주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사진)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의결했다.

박현주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사모펀드 등 금융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다수의 대형 인수합병(M&A)에도 참여하는 등 투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주총회의결을마치면 SK(주) 이사회는 사외이사 5명 중 여성이 1명에서 2명으로, 여성 사외이사 비율은 40%로 늘어났다.

또, SK(주)는 투자자들이 결정된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도 추진한다.

현재 정관은 이익 배당의 경우 매 회계연도 마지막 날, 중간배당의 경우 7월 1일 0시를 배당 기준일로 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정관은 배당액 확정일 이후 배당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결산 배당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일 이후로 변경토록 권고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엔씨 '리니지', 전세계 매출 70억 달러 돌파

'리니지M' 유저 충성도 가장 높아
'리니지W' 해외매출 비중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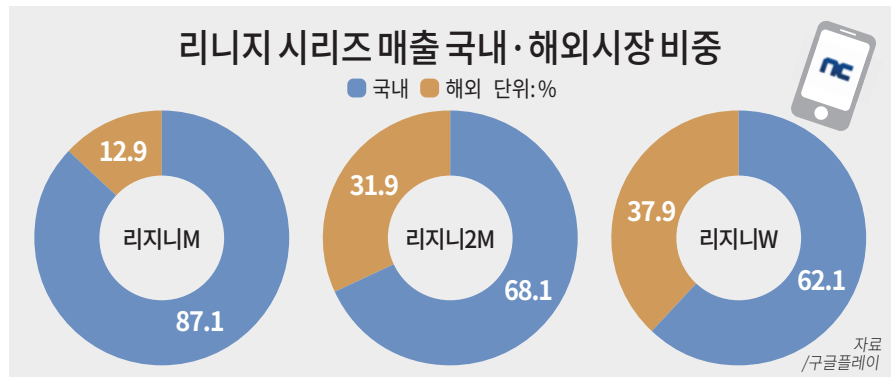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IP 기반 모바일 MMORPG 세 작품의 전세계 누적 합산 매출이 7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센서타워 스토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17년 '리니지M', 2019년 '리니지2M', 2021년 '리니지W' 등 출시된 세 작품의 전세계 누적 합산 매출이 70억달러를 넘어섰다(지난달 14일 기준). '리니지M'은 약 42억 3700만 달러, '리니지2M'은 약 17억 6500만 달러, '리니지W'는 약 10억 5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15일부터 올해 지난달 14일까지 1년간 한국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통합 기준 매출 랭킹 TOP 5로 살펴보면, '리니지M'이 1위에 랭크돼 있다.

이어 '리니지W' 2위, '오딘: 발할라 라이징' 3위, '리니지2M' 4위, 그리고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5위에 자리했다.

30일차 리텐션(잔존율)을 확인했을 때 리니지M은 5개의게임 중 출시된 지



가장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리텐션이 10%로 가장 높았다.

관계자는 "리니지M이 수의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높은 유저 충성도와 참여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 성공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1년간 각 게임의 매출에서 해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리니지M'은 12.9%, '리니지2M'은 31.9%, 그리고 '리니지W'는 37.9%이었다. 즉, 리니지 3개의 시리즈 중 '리니지W'가 매출에서 해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W에서 W가 월드와이드를 의미하는 만큼 페이투플레이를 즐기는 글로벌 유저에게 적합한

모델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전 세계 모바일 게임 매출 랭킹을 보면, '리니지W'는 17위에 오르며 '리니지M'과 '리니지2M'을 랭킹에서 앞서 있다.

센서타워 측은 "리니지M'에 대한 국내 사용자 충성도는 계속해서 성공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으로 보인다"라며, "엔씨소프트는 북미와 유럽 시장의 '리니지W' 출시 전 유명 일본 만화인 '베르세르크'와 협업하는 등 현지에서 리니지 IP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긍정적인 행보는 앞으로도 리니지 3형제의 아성이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삼성디지털프라자, '삼성스토어'로 새출발

전국 360개 매장 등 이름 변경
젊어진 브랜드 이미지 강화

삼성 디지털프라자가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한다.

삼성디지털프라자는 8일부터 삼성스토어로 이름을 바꾼다고 7일 밝혔다. 전국 360개 매장과 함께, 백화점과 대형마

트 등에 입점한 전체 오프라인 매장도 함께 변경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갤럭시·비스포크·스마트싱스·라이프스타일 TV 등으로 한층 젊어진 삼성전자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삼성스토어를 차별화된 맞춤형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방침이다.

'원삼성'이 제공하는 초연결 경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밀착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변모하는게 목표다.

이를 위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 다른 업종과 협업도 강화한다. 삼성컬처랩으로 비스포크 가전과 갤럭시 기기 사용법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쿠킹과 인테리어 등 MZ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재용기자 juk@

www.veganfesta.com

Vegan Festa

제7회 베지노믹스페어
비건페스타
동시개최 그린페스타

IT'S A GOOD LIFE!

식품&음료 | 패션&뷰티 | 생활용품
친환경 기술&제품 | 기타

2023.3.17.(금)~19.(일)

SETEC

EXCOM
(주)엑스컴인터내셔널

카카오, SM지분 4.91% 확보 이어 ‘15만원 공개매수’ 선언

지난달 28일 66만6941주 사들여
‘기타법인’ 대량매수 종목과 일치

카카오, 35% 지분 추가확보 계획
“SM엔터와 안정적 파트너십 위해
최대주주 지위 확보 불가피 판단”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을 두고 하이브와 격돌 중인 카카오가 반격에 나섰다. 최근 장내매수를 통해 4.91% 가량의 지분을 확보한 데 이어 하이브보다 높은 가격에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1대 주주에 오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7일 카카오가 제출한 에스엠 공개매수 신고서에 따르면 카카오와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에스엠 주식을 각각 78만주(3.28%), 38만7400주(1.63%) 총 116만7400주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스엠의 주식을 대량매집한 ‘기타법인’은 카카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달 28일부터 장내매매를 통해 지분을 늘려왔다.

특히 카카오가 지난달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날인 지난달 28일 카카오에 서만 66만6941주를 확보했으며, 이는



한국거래소가 ‘기타법인’의 대량매수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밝힌 수량과 일치한다.

다만, 또 다른 대량매집일인 지난달 16일에 65만주를 매수한 기타법인은 카카오가 아니었다. 앞서 하이브는 해당 일 특정계좌를 통해 대량 매수가 이뤄졌으며 시세조종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성서를 제출

한 바 있다. 금감원은 에스엠 주식 대량매집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슈가 되고 있는 대량 매집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카카오의 대량 매집 역시 포함”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는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기존 보유지분에 더해 35%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 총 39.9%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약 1조 2516억원의 자금을 활용해 각각 416만 주 가량을 주당 15만원에 매수할 예정이다. 카카오 측은 “SM엔터와의 파트너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에스엠의 오리지널리티를 존중하고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공개매수 소식과 함께 에스엠의 주가도 공개매수가에 근접하게 급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스엠 주가는 이날 전일 대비 1만9600원(15.07%) 오른 14만9700원에 장을 마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현 이사진에서는 카카오에 대한 공개매수 지지를 표명했다. 에스엠 엔터 측은 “적대적 M&A를 통해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하이브와 달리, (카카오는) SM 고유의 전통과 정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독립적 운영과 아티스트의 연속적·주체적 활동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1일 열리는 주총에서 독립적 이사회를 지지하는 카카오가 SM 3.0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최적의 수평적·전략적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금리 고점?... 서학개미, 美 ETF ‘줍줍’

해외주식 Click

예탁결제원, 순매수 1위 종목 TMF
3041만 달러 사들인 TQQQ 2위

미국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월 배당 상품과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관련주도 대거 순매수했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2월 27일~3월 5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20+ 이어 트레저리 볼 3X SHS ETF(TMF·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SHS ETF)로, 3425만달러가 몰렸다. TMF는 미국 20년물 국채 3배 레버리지 상품이다.

서학개미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TMF를 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TMF는 미국 장기채지수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 미국 국채 가격

이 오르면 3배로 수익을 내는 구조다.

단, 여전히 시장은 기준금리가 5%에서 6%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가능성은 69.4%, 0.50%p 인상 가능성은 30.6%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TMF도 지난 1개월간 13% 가까이 주가가 하락한 상태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3, 5, 6월 FOMC에서 각각 25bp(1bp=0.01%p) 금리 인상 후, 5.25~5.50%를 최종 정책금리의 종착지로 연말까지 유지하는 것을 예상한다”며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채권 ETF인 아이셰어즈 20+ 이어 트레저리 본드 ETF(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도 1118만달러가 유입되며,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TLT는 미국 20년물 장기 국채 가격을 추종하는데, 미국에 상장된 장기채권을 다루는 ETF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자 비교적 안정적인 배당 상품에도 서학개미들의 자금이 몰렸다.

제이피모건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JEPI·JP 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와 슈왓 미국 배당주 ETF(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에는 각각 2015만달러, 929만달러의 순매수세가 이어졌다.

JEPI는 미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월 배당 ETF로 해당 주식에 대한 콜옵션(주식을 일정 금액에 살 권리)을 매도해 주가 하락 위험에 대비한다. SCHD는 미국 고배당 성장주에 투자한다.

챗봇 관련주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주에 대해서는 2주 연속 매수 기조를 이어갔다. 1931만달러, 1094만달러씩 유입됐다.

알파벳은 최근 AI 챗봇 바드(Bard) 출시를 예고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주요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검색엔진 Bing(Bing)과 웹브라우저 에지(Edge)에 챗GPT를 탑재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개월째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서울 아파트 거래량 2개월째 1000건 돌파

정부 1·3대책 이후 매수심리 회복세
2월 거래 1658건, 8개월 만에 최고치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개월 연속 1000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정부의 1·3대책 발표 이후 급매물 위주로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매수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이 서서히 효과를 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까지 집계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신고 건수는 1658건으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1월(1417건) 대비 17.0%(241건) 증가했다. 지난해 7월(648건)을 시작으로 12월(836건)까지 6개월 동안 1000건 아래로 떨어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1000건을 넘어선 것.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내인 만큼 실거래 등록 기준일이 지나지 않은 거래들이 추가로 등록될 것을 감안하면 2월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집값이 크게 떨어져 급매물에 수요가 몰린 지역 위주로 거래량이 많았다.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이 거래된 지역은 송파구(166건)였고, 강동구(145건), 노원구(132건)가 뒤를 이었다. 해당 지역들은 1·2월 연속으로 100건 이상 매매가 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정부의 1·3대책 이후 송파구와 강동구, 노원구 등에서 거래가 많이 늘었다”면서 “송파구의 경우 신축을 중심으로 투자 목적으로 산 경우가 많아 세금 등 여러 규제에 의해 급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격 하락세는 둔화하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4%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26%)보다 0.02%포인트 축소되면서 3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시장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완화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폐지, 주담대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1년),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주담대 대출한도 6억원 기준 폐지 등 부동산 규제완화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거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매물 중심의 간헐적 거래일 뿐 거래량이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구매 심리가 본격적으로 살아난 것인지 아니면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계절적 요인에 의해 거래가 늘어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더 쌓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젼백스링크의 전자투표 미실시, 소액주주 주총 막는 ‘꼼수’”

경영정상화비대위, 표대결 예고

코스닥 상장사 젼백스링크가 이번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젼백스링크 경영정상화비대위는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막으려는 ‘꼼수’라며, 우호지분 확보를 통한 표 대결을 예고했다.

7일 젼백스링크가 주주들을 상대로 발송한 서신에 따르면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제는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지난 2017년 이후 6년간 주총에서 채택한 전자투표제를 올해는 실시하지 않

는다.

통상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주총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측은 주주들의 손쉬운 의결권 참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전자투표제를 실시할 경우 소액주주들의 원활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주주들의 의결권 참여기회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김상재 젼백스링크대표 등 현 경영진 교체에 동참한느 우호지분을 17%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젼

백스링크로부터 주주명부를 입수해 본격적인 위임장 대결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비대위는 “지난 2일 법률자문 로펌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가 젼백스링크를 방문해 인쇄물 형태의 주주명부를 수령했고 엑셀파일 형태로 입력을 마치고 의결권 수거업체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공동보유를 통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주주간계약에 동참한 지분 8.7%를 포함해 비대위가 상정한 주주총회 안건을 지지하는 지분이 17%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박미경기자

이영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 고효율 에너지설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민생회복 전방위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애로 청취
조주현 차관 화재난 현대시장 방문
“생업복귀토록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전통시장 주무부처로서 현장 애로 등 민생을 챙기기 위해 더욱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장관, 차관, 그리고 차관급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까지 전방위로 나서면서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 홍대 인근의 스터디카페 ‘팀플레이스’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업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애로를 청취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이 장관 외에 최근 에 취임한 소상공인연합회 허영희 상근 부회장을 비롯해 대한속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전국소공인협회 김영홍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손무호 정책개발국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 백년가계협동조합연합회 이근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를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전하면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책



이영 중기부장관(왼쪽 2번째)이 7일 서울 마포 홍대 인근의 스터디카페 ‘팀플레이스’에서 열린 소상공인·전통시장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마련, 소상공인 매출 촉진, 저금리 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영 장관은 “지난 2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신용보증 2조원 추가 공급, 정책융자 신속집행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면서 “이밖에도 물가상승·소비위축 등을 고려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식소비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용해 도입비,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말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서 “전국을 다녔으면 원재료 가격 상승 및 물가상승분을 김영란법 음식값이 따라가질 못해 3만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식질이 떨어진 경우 손님이 끊어지고, 음식질을 유지해야하는 경우 이윤이 거의 남

지 않는 악순환 상황이었다”면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8년차를 맞고 있지만 올해 현재 물가가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상황이고,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이번 논의가 좋은 결문으로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이날 나온 현장애로,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이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예정인 ‘제2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방화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동구 현대시장을 일요일인 지난 5일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복구가 끝날 때까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조 차관은 “가뜩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이같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상인분들이 하루빨리 생업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현장대응반을 꾸렸다. 사고가 발생한 시장에는 폐기물 처리, 긴급 방역 등 긴급 복구비를, 개별 점포에는 용자 형태로 최대 7000만원(연 2%, 2년 거치

2년 상환)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최대 2억원(보증료 연 0.5%)의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시장은 지난 4일 밤 발생한 화재로 55개 점포가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모범음식점이 음식 가격을 5% 이상 올릴 경우 용자받았던 식품진흥기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연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관련 규정이 있는 지자체에서 용자를 받은 모범음식점은 저금리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가 오르더라도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거나, 음식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자금을 전액 상환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해 8개 지자체에 대해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 중 4개 지자체가 연내에 삭제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개 지자체는 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나머지 2개 지자체는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내 몸에 맞는 침대 찾고 체험 서비스 받아요” 세아그룹,故이운형 선대회장 10주기 추모

에이스침대

이동수면공학연구소 3년만에 재개
2004년부터 18만 명의 데이터 수집

에이스침대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찾아가는 침대과학 서비스 ‘이동수면공학연구소(ACE BED Mobile Sleeping R&D Institute)’를 3년만에 다시 운영한다.

에이스침대는 지난 2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에이스스퀘어 중곡점을 시작으로 이동수면공학연구소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로 서비스가 중단된 뒤 약 3년 만이다.

에이스스퀘어 중곡점에서 진행한 이동수면공학연구소 운영 현장에는 과학적 원리를 통해 자신만의 최적의 침대를 찾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회사는 첨단 장비를 통해 내 몸에 맞는 침대를 알아보고 실제 매트리스



에이스침대가 서울 광진에 있는 에이스스퀘어 중곡점을 시작으로 3년만에 이동수면공학연구소 서비스를 재개한다. 고객들이 자신에게 맞는 침대를 찾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에이스침대

스에 누워 체험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동수면공학연구소는 척추형상 측정기, 체압분포 측정기 등 최첨단 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고객 곁으로 직접 찾아가 개개인의 체형에 따라 최적화된 침대를 선정해 주는 서비스다.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와 한국표준

과학연구원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이동수면공학연구소의 침대 선정 시스템은 1단계 성별, 나이, 신장, 체중, 수면습관 등 기본 고객 정보 입력, 2단계 체압분포 측정, 3단계 척추형상 측정, 4단계 최적 침대 선정, 5단계 선정된 매트리스 체험 순으로 진행된다.

/김승호 기자

10일 서교동 세아타워서 사진전

15일엔 예술의전당 갈라 콘서트

세아그룹은 ‘철강업계 신사’로 불렸던 고(故) 이운형 선대회장 영면 10주기를 맞아 고인의 따뜻한 모습을 추억하고 생전의 뜻을 기리는 다양한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10주기 당일인 오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세아타워에서 유가족과 세아그룹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면 10주기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

또 약 한 달간 세아타워 기업 역사관 ‘세아관’에서 “죽는 날까지 철강업을 하고 싶다”던 생전 바람대로 철강업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고인의 부드러운 리더십과 온화한 성품을 조명한 ‘心如鐵(심여철)-철과 같은 마음으로’ 추모사진전을 개최한다.

15일 오후 7시 30분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국립오페라단 초대 이사장 및 후원회장을 13년간 맡아 오페라의 저변 확대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한 뜻을 기려 ‘세아이운형문화재단 10



故이운형 회장이 2011년 오페라 공연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

주기 갈라 콘서트’가 열린다.

이 회장은 1974년부터 2013년까지 약 40년간 세아그룹을 이끌며 국내 강관업계 최초 1억달러 수출 달성, 지주회사체제 선제적 도입, 기아특수강(現 세아베스틸)·창원강업(現 세아특수강) 인수 등을 통해 매출을 약 300배 가까이 성장시키는 등 국내 강관·특수강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81년 금탑산업훈장, 2003년 메세나대상창의상·한국윤리경영대상, 2009년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2012년 인스트엔영 철강산업부문 최고 기업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옴디아, 작년 반도체 불황에도 최대실적… 3분기부터 추락

자동차 반도체 전년 대비 21% 증가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까지는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시장은 총 수익 5957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년(5928억달러)보다도 성장했다.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21%나 증가했다. 이미 전년에 두자

릿수로 성장했던 유선 통신과 가전 반도체 등도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그러나 하반기 침체도 깊었다. 4분기를 기준으로 수익은 1324억달러로 전년 동기(1611억달러)와 비교해 82%에 불과했다. 메모리만 보면 3분기 241억달러로 전년 동기(465억달러)보다도 절반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데이터 처리 부문 수익은 PC 및 기타 애플리

케이션 수요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6% 줄었다.

옴디아는 코로나19 종식으로 IT 수요가 축소하에 더해 제조업체 높은 투자로 인한 과잉 재고, 거시 경제 위축으로 인한 수요 둔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1분기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웅 기자 juk@

하늘길 열린 中… 플라이강원 4개 노선 취득

베이징·장춘·웨이하이·하이커우

플라이강원이 중국 민용항공총국(CAAC)으로부터 베이징, 장춘, 웨이하이, 하이커우 4개 노선에 대한 경영허가를 7일 취득했다.

2020년에 배운 받은 ▲베이징 ▲장춘, 2022년에 받은 ▲상하이 ▲청두 이

렇게 4개의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플라이강원은 이번에 ‘베이징’, ‘장춘’과 항공자유화 지역이라 운수권이 필요 없는 산둥성 최대항구도시인 ‘웨이하이’와 하이난성 성도인 ‘하이커우’를 묶어 4개 노선에 취항을 위한 첫 단계인 경영허가를 취득한 것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자원 부국’ 우즈벡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제1차 한-우즈벡 에너지대화 개최

MOU 체결 1년 3개월 만에 첫 가동 천연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논의

정부가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원 부국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7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아흐멧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차관과 ‘제1차 한-우즈벡 에너지대화’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등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즈벡은 천연가스, 금, 우라늄, 텅스텐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원부국으로 우리나라와 전통자원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다.

이번 한-우즈벡 에너지대화는 지난 2021년 12월 우즈벡 정상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 체결한 에너지 대화 채널 구축 MOU에 따라 처음 개최되

는 공식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은 최근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와 지속되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에너지정책을 공유했다. 또, 우즈벡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즈벡 정부는 향후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즈벡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통해 우즈벡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영길 실장은 우즈벡 정부의 수입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강화 규제 개정 절차 착수와 관련 우즈벡 정부가 규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규제 개정 이전 우리기업의 수출제품 통관을 재개하

기로 한 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공식 채널을 통해 에너지 규제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우즈벡은 작년 12월 수입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강화 규제를 발표한 이후,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 수입품과 내수품 간 차별 완화를 위한 규제 개정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천 실장은 아울러, 우즈벡에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수르길 사업 가스대금 미수금’, ‘텅스텐 광산개발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해 언급, 해당 사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즈벡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천 실장은 “앞으로 양국이 한-우즈벡 에너지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화진 장관, 영농폐기물 재활용시설 방문

한화진(오른쪽) 환경부 장관이 7일 경기 안성 영농폐기물 재활용시설을 방문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장 단속

징역2년, 벌금 2000만원 처벌 강화

정부가 그간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기획점검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라 늘어 2021년 기준 약 2만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벌금 500만원에 그치고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는 등 불법·편법 영업 행위 근절에 한

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되는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 신고제가 도입되며, 영업장 폐쇄 조항이 신설된다. 무허가나 무등록 업체에 대한 처분도 기존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5년간 170조 투자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정부가 5년 간 연구개발 부문에 17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030년에는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최고 선도국 대비 8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5년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의 연구개발 예산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12대 국가전략기

술에 25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 이행을 통해 에너지 기술 혁신 및 저탄소 산업구조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친환경 에너지 생산·저장·유통 기술 혁신, 연료 경쟁력 조기 확보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고도화 등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두번째로는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통신 등 혁신기술 기반 디지털 기술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5G·6G,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개발해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혁신 역량이 기반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기업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원효과 제고 등으로 민간 성장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 대응을 통해 소·부·장 핵심기술 및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 제조혁신 및 노화·감염병 대응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분야별 지원 체계화, 안정적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학원 연구·교육 혁신, 산·학·연 협동 인재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제협력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채윤정 기자 echo@

김포공항

세계공항서비스평가 우수공항 선정 쾌거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국제공항이 ‘2022년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Airport Service Quality)’에서 우수공항으로 선정됐다.

국제공항협회(ACI)는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291개의 주요 공항들을 대상으로 시설 청결도, 공항이용 편리성, 직원 친절도 등 공항경험에 대한 이용객 만족도를 평가해 69개의 우수공항을 발표했다.

중·대규모 평가군(연간 여객 수 2500만~4000만명)에 속한 김포공항은 공항 내 시설 위치에 대한 스마트한 안내서비스와 편안한 승객 대기시설, 신속한 보안검색 절차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공정위, 렌탈 강요 와이케이건기에 시정명령

대리점 6곳 위탁수수료 10만원 삭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건설기계 판매·렌탈 사업자인 와이케이건기가 자신의 건설기계 위탁판매 대리점 중에서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케이건기는 2018년 1월~5월까지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 취급 여부에 따라 대리점을 차별,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 판매 대수 당 위탁수수료 1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반대로 렌탈 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점 7곳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줬다.

공정위는 해당 대리점들이 와이케이

건기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고, 평균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등 사실상 대체 거래선 확보가 어려워 와이케이건기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봤다. 또 와이케이건기의 행위는 계약서 규정에 없는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게 계약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삭감해 지급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왼쪽 3번째부터)이윤영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직무대행,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한국국제협력단

중소 해외 공적개발 시장 진출 맞손

업무협약 맺고 정보 공유 등 모색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KOICA와 중소기업 ODA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정보·데이터 공유 ▲중소기업 동반성장 상호협력 ▲상호 홍보협력 및 공동사업 활성화 ▲국내외 조직 및 네트워크 공유 등을 위해 긴밀

히 협력키로 했다.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우수한 기술과 잠재력을 가진 우리 중소기업이 국제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에 동참하면 좋겠다”며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ODA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ION SUPPLY DRINK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운동기반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박완수,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위해 머리 맞댄다

(경상남도 도지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서 전략회의
13개 방산기업·9개 협력기관 논의
기업 애로 청취 후 대정부 건의

경남도가 대한민국 세계 4대 방위 산업 수출국 도약을 위한 경남의추진 전략 구상에 나섰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6일 오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찾아 22명의 방산기업 및 협력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회의를 가졌다.

방위산업 수출전략회의는 지난해 대한민국 방산 수출액인 173억 달러의 성과를 이어가고,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남의 추진 전략 구상과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우조선해양, 코오롱테크컴퍼지트, SNT다이나믹스, SK오션플랜트, 한국화이바, 두원중공업, 이엠코리아, 에이엔에이치스트럭처,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킴 등 방산기업 13개사가 참석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중소벤처



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 방위산업 수출 전략회의 주재

기업청,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OTRA 경남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수출입은행 경남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등 11개 협력기관이 참석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방위산업은 기계 산업에 IT, AI 등이 융체된 모든 산업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경남이 방위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면서 “경남 방위산업의 장기적 수급 상황을 개선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남도와 연구기관, 기업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13개 방산기업은 ‘국가전략기술 선정 및 세액공제 확대’, ‘방위사업계약법 조속 제정’, ‘절충교역 가치승수 중소기업 확대’, ‘신규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등 방산 수출 지원 확대’, ‘MRO산업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을 건의사항이 제시했다.

전략회의에서 협력기관들은 기업 맞춤형 방산 수출 전략과 정책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방산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함께 청취하고, 방위산업의 수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하며 향후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대정부 건의와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 지원’을 민선8기 도정의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수출지원, 인프라 등 5대 분야 29개 세부과제를 담은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경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박완수 도지사가 직접 건의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컨트론타워 구축 ▲방산물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제도 개선 등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다.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의 경우,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 국비 2억 원이 확보됐고,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컨트론타워 구축 건은 국가안보실 2차장실 산하 ‘방산수출 기획팀(가칭)’ 신설될 예정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

‘중소 수출직불금’ 10억 지원

전남도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버팀목인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과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1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전남도는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 물류비 폭등으로 1월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출직불금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제조한 제품을 직수출하는 전남 중소기업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남해관광문화재단

DMO육성지원 평가전국1위

남해관광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한 ‘2022년도 지역관광추진조직 DMO육성사업’에서 전국 총 10개 지자체 가운데 S등급, 종합 1위로 한국관광공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전국의 10개 지자체가 경쟁한 이번 평가에서는 관광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DMO 사업 운영 및 지역관광 기여도 등 15개 세부 평가지표를 통해 심사가 진행됐다. 재단은 모든 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며 종합 1위를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남=이도식 기자

영천시

챗GPT 활용해 행정혁신 추진

영천시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자체의 업무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계획을 선보였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챗GPT를 활용한 행정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하여 영천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보도자료, 인사말 등 홍보자료 및 내부보고의 기초자료를 생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업무 방식에서의 불필요한 작업 시간과 인적 자원의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획은 영천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로, 영천시의 디지털 분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경북)=이상호 기자

상주시

취업취약계층 236명 선발

상주시가 ‘2023년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청·장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 연간사업비 1101백만 원을 투입해 참여자 236명을 선발한다. 본 사업은 상·하반기 각 4개월간 시행된다. 상반기 참여자는 공공근로 39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83명으로, 환경정비·행정보조 등 총 47개 사업(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본 작업장에서는 관내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다양하고 활용도가 높은 물품을 제작하여 상주시민 및 필요시설에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상주(경북)=이상호 기자

글로벌 부산웹툰 작가들 기타큐슈서 ‘K웹툰’ 뽐내

이아영·박시온·김기백 작가 선발
기타큐슈 배경 웹툰 그리고 출판도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정문섭)은 공모를 통해 선발된 부산 지역 웹툰 작가 3인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일본 기타큐슈 지역에 파견되어 현지 취재를 통한 작품 제작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2018년부터 일본 기타큐슈 만화박물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작품 교류를 추진해왔다. 2019년에는 일본 작가 3명이 부산에 파견되어 부산 브랜드 웹툰 6개 작품을 제작했으며, 당시 함께 참여했던 부산 지역 작가들의 작화 실력을 인정한 만화박물관 관계자가 올해 기타큐슈를 배경으로 한 웹툰 제작을 제안했다.

이번에 선발된 이아영 작가, 박시온 작가, 김기백 작가는 공모전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부산 지역 활동 작가들로 주력 장르는 로맨스, 스릴러 등 다양하다. 완성작품은 기타큐슈 만화박물관에서 출판된다. 일본 국제 만화가대회에 기획 전시될 뿐만 아니라 K-TOON 플랫폼에도 연재될 예정이다.

또한 정규하 작가를 포함한 부산 지역 작가 7명의 작품 20점이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개최되는 한국영화제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만화와 웹툰’과 ‘만화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탈리아



김우섭 작가의 ‘샤크’ 표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아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는 정규하(Q-HA) 작가의 작품과 함께 영상화된 부산 지역 웹툰이 대거 전시된다.

이번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는 개막작 ‘한산’과 관련해 정규하 작가의 ‘노랑’이 전시되며, 정규하 작가의 작품과 함께 김우섭 <샤크>, 오영석 <독고>, <통>, 김태건 <강철비>, <아리둥라스트 카우보이>, 오수민 <심야카페>, 남정훈·김태현 <제7원>, 이성규 <바리> 등 부산 지역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다.

아울러, 피렌체 만화 아카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하 작가의 마스터클래스도 기획되어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포항시, 올해 첫 추경 2.7조 편성

경북 포항시는 총 2조 70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2조 2450억 원보다 940억 원(4.19%)이 증가한 2조 3390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3550억 원보다 60억 원(1.69%)이 증가한

3610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259억 원, 순세게임요금 547억 원, 세외수입 100억 원, 특별교부세 34억 원 등이다. 이번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액과 안전 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 직제 개편부서 예산 등을 조정·반영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울산시, 태화강 수상레저 성지 만든다

‘수상스포츠체험센터’ 건립 본격화
하반기 실시설계 착수 2024년 완공

울산시가 태화강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울산시는 태화강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건립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 협의를 진행 중이다.

‘태화강수상스포츠 체험센터 건립’은 민선 8기 ‘야외체육시설 조성’ 공약의 3가지 이행계획 중 하나다.

체험센터 건립은 일반인에게는 카

누, 카약, 조정, 패들보드 등의 수상스포츠 체험장을, 동호인 및 전문체육인에게는 수상스포츠 훈련장을 제공하고 추진됐다. 이 사업은 2021년 제7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어 2022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 협의를 하고 있다.

올해 하천점용 협의를 완료하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4년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봄철 산불방지 선제 대응 나서

경북도는 연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제적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 태세 점검에 나섰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6일 시군 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영상회의

를 개최했다. 이 도지사는 한식·식목일을 앞두고 성묘·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봄철 산불 대응과 피해 최소화해 만전을 기할 것을 부단체장들에게 당부했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초저출생 시대… ‘에잇포켓 키즈’ 유아동 명품은 승승장구

〈1명의 아이에게 8명이 지갑을 여는 현상〉

백화점 3사, 명품매장 확대 나서
현대백, 올 아동부문 매출 18% ↑
명품 아동부문 26%까지 성장
타 백화점도 명품 성장상황 비슷

‘합계 출산율 0.78명.’ 초저출생 시대에 오히려 명품 유아동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어린아이는 줄지만 백화점 3사는 지난해부터 명품 유아동 브랜드 입점에 열을리고 있다.

‘에잇포켓 키즈(Eight Pocket Kids)’ 현상도 새삼스럽지 않다. 에잇포켓 키즈는 본격적인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2016년 경 등장한 신조어로, 과거 1명의 아이에게 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와 이모·삼촌 등 8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현상을 일컫는다.

팬데믹 사태 중 나타난 보복소비 현상에서 비롯한 명품 선호까지 더해져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지만 도리어 명품 유아동 시장은 승승장구 하고 있다.

7일 〈메트로경제〉취재 결과, 백화점 3사가 유아동 명품 브랜드 확대를 이어



지난 2일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들을 보호자들이 살피고 있다. 출산율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지만, 아이 1명에 대한 가족들의 투자와 지원은 크게 늘면서 유아동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특히 명품 유아동 매출은 전체 아동 시장의 2배 이상을 기록 중이다. /뉴시스

가고 있다.

지난달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줄었다. 2022년 O 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9명으로, 한국이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동안 1.68명~1.59명을 유지했다. 한국은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이 됐다.

반면, 유아동 시장 성장세는 가파르다. 한국소비자원이 매년 발간한 한국 소비자조사에서 유아동 시장은 2018년 4.6%, 2019년 5.5%, 2020년 6.4%, 2021년 7.5%, 2022년 8.3%까지 뛰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도 연 평균 2.7% 이상 성장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줄었던 명품 유아동 브랜드 매장을 다시금 늘리고 있다. 통

계청이 출생아 수를 발표한 날, 현대백화점은 압구정 본점에 명품 아동 브랜드 ‘베이비 디올(Baby Dior)’ 매장을 열었다. 베이비 디올은 원피스외의 경우 100만원 전후 상품이다수로, 디올의 성인 상품과 가격 차이가 별반 없다. 이보다 앞선 22일, 신세계도 프리미엄 아동 브랜드 ‘아플리에슈’의 팝업스토어를 국내 최초로 열었다.

백화점 업계는 지난 5년간 명품 아동 브랜드를 축소하다가 올해 다시 확대 중이다. 2018년 기준 각 백화점에 입점한 명품 유아동 브랜드는 현대백화점 19개, 롯데백화점 19개, 신세계 백화점 17개였는데, 2021년까지 매년 1개~4개씩 줄여나갔다. 이에 명품 유아동 매장은 2022년 현대백화점 12개, 롯데백화점 11개, 신세계백화점 10개까지 줄었는데, 올해 3월 기준으로 각각 15개, 15개, 12개로 오히려 늘었다.

관련 부문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된 후 첫 등교를 앞둔 지난달에는 괄목할 실적을 내기도 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지난 1, 2월 명품 외 브랜드까지

포함한 아동 부문 매출은 18.1%였는데, 명품 아동 부문은 26.5%까지 성장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엔데믹 전환 이후 첫 정상 입학과 함께 저출산 기조 속에 ‘아이 한명이라도 잘 키우자’는 트렌드가 확산하며 아동 상품군 매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봉변앙, 펜디키즈 등 프리미엄 명품 아동 브랜드 매출은 더욱 가파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백화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롯데백화점 또한 아동 부문 장르는 15% 성장했으나 명품 유아동 매출은 20%까지 뛰었다. 신세계 백화점도 같은 기간 명품 유아동 브랜드 매출이 32.6%까지 성장했다.

신세계백화점 최문열 상무는 “귀하게 키우는 자녀들, 이른바 ‘골드 키즈’가 늘어나면서 아동 장르 매출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1~2명의 자녀에 대한 소비가 집중되는 만큼 관련 장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11번가, 8년 연속 ‘존경받는 기업’ 1위

KMAC 주관… 오픈마켓 부문
노력·믿을만한 기업 평가 높은점수

11번가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23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8년 연속 오픈마켓 부문 1위에 올랐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부문은 기업의 혁신능력, 고객 가치, 사회가치 등 6대 핵심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1번가는 격변하는 e커머스 시장에서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해왔으며 이에 ▲고객 만족을 위해 노



력하는 기업 ▲믿을만한 기업 ▲사회공헌을 잘 하는 기업 등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11번가는 상품 품질이 뛰어난 산지 생산자의 신선식품을 직배송 해주는 ‘신선배송’, 하이엔드 럭셔리부터 컨템포러리 브랜드까지 믿을 수 있는 명품을 판매하는 명품 전문관 ‘우아럭스

(OOAh luxe)’ 등 버티컬 영역의 서비스 강화에도 주력한다. 치열한 e커머스 경쟁 상황에 대응할 11번가만의 독보적인 쇼핑 환경 구축으로 성공적인 ‘11번가 2.0’ 달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정은 11번가사장은 “‘고객 중심’의 신념을 기반으로 새롭게 독보적인 쇼핑 서비스들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데 힘써왔다”며 “한 차원 높은 고객 만족과 신뢰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LF몰서 ‘챔피언’ 캠핑라인 단독 공개

엘:에이블관서 19일까지 기획전
‘코튼 USA’ 프리미엄 면화 사용

LF는 오는 19일까지 자사몰인 LF몰 내 자체 단독 상품 전문관 ‘L:able(엘:에이블관)’에서 글로벌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 ‘챔피언(CHAMPION)’의 신상 캠핑라인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챔피언은 LF몰을 통해 ‘고아웃 캠핑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캠핑은 물론, 봄나들이에 적합한 챔피언의 캠핑라인을 국내 단독으로 제안한다. 이번 챔피언 캠핑라인은 1970년대 전만 미국 라이프스타일을 바탕으로한 클래식한 색감과 미국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목 받은 히피 문화를 형상화한 그래픽을 적용했다.

또 챔피언 캠핑라인에는 미국의 까다로운 지속가능 시스템을 통해 생산하는 ‘COTTON USA’ 프리미엄 면화를 사용했으며, 돌로 원단을 굵어 색 바랜 질감을 표현하는 ‘스톤 바이오 워시’ 가공



법을 적용해 빈티지한 감성과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이다.

LF몰 관계자는 “오는 3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은 국내 유일 LF몰에서만 챔피언 캠핑라인을 선보이는 에피소드로 다양한 화보와 함께 제품 정보를 더욱 보기 쉽게 구성했으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유튜브 〈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김서현 기자

홈플러스 저칼로리·저과당 등 건강먹거리 매출 늘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저칼로리, 저과당 등 건강 먹거리 수요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고객 소비 데이터에서 기존 제품보다 칼로리를 낮추거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 품목 매출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칼로리와 성분을 꼼꼼하게 따져 건강하게 즐기는 고객들의 소비 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월 한 달간 저칼로리 즉석밥, 저칼로리 라면 품목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90%, 33% 뛰었다.

홈플러스는 지난 1일 ‘요즘 그릭요거트’ 3종을 출시했다. 콩포트, 카카오닙스, 아몬드, 귀리 등 다양한 재료로 구성한 그레놀라가 포함돼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도 좋다.

/김서현 기자

‘여성의 날’ 각양각색 5인 인터뷰 공개

카카오스타일 지그재그서 캠페인

카카오스타일은 3월 8일 UN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사 브랜드 ‘지그재그’가 기념 캠페인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로 115주년을 맞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5인의 유명 인사 인터뷰를 통해 각양각색 여성의 삶을 다루는 게 핵심이다.

인터뷰에는 영화감독 변영주, 범죄심리학 전문가 박지선,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 이슬아, 수영선수 정유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규린이 참여했다. 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나다움’, ‘여성스러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각각의 일상과 인터뷰를 담은 15분 내외 미니 다큐멘터리로 제작됐다.

캠페인 영상은 지그재그 콘텐츠 전용 앱 발견 또는 지그재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8일 오후 6시부터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지그재그는 패션브랜드



지그재그가 3월 8일 UN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유명 인사 5인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카카오스타일

‘미쏘’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인 삶을 개척하고 있는 8인의 유명 인사가 참여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을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

크리에이터 노은솔, 무용수 주하늘, 요리연구가 요나, 페인터 박연경, 스타일리스트 이로운, 사진작가 임수민, 플로리스트 최민지, 작가 김겨울 등이 미쏘 제품을 착용한 화보와 영상을 지그재그 내 캠페인 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김서현 기자

크라운제과 ‘50살 조리퐁’ 굿즈 선물세트 출시

크라운제과가 원조 K-시리얼 과자 조리퐁 출시 50주년을 맞아 특별한 굿즈 선물세트(사진)를 출시한다.

바삭한 조리퐁에 달착지근한 마시멜로와 함께 2가지 굿즈(시리얼볼, 스푼)로 구성된 ‘조리퐁 with(위드) 멜로팝’이다.

1972년 출시된 조리퐁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5000개만 만든 기프트팩으로 카카오 ‘선물하기’와 주요 e커머스 채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고소한 오리지널 조리퐁을 ‘얹랩’의 스테디셀러 마시멜로인 ‘멜로팝’으로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 별도로 포장된 조리퐁과 멜로팝을 8:2 비율



로 섞어 우유에 말아 먹으면, 달콤고소한 조리퐁 시리얼이 완성된다. 7가지 유산균으로 만든 프리미엄 마시멜로우라 건강까지 챙긴 것도 장점이다.

원조 K-시리얼 과자인 만큼 우유만 있으면 바로 즐길 수 있도록 ‘시리얼볼’과 ‘스푼’을 스페셜 굿즈로 함께 담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코로나19·수막구균 백신 개발자 4명 ‘박만훈상’ 수상

(백신업계 노벨상)

SK바이오사이언스 발표

GSK 라푸올리·피자 박사
어린이 방역에 새로운 지평 열어

앤드류 폴라드·사라 길버트 교수
안전한 일상 회복에 크게 기여해



수막구균 B 백신을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한 GSK의 마리아그라지아 피자 박사(왼쪽)와 리노 라푸올리 박사가 2023년 박만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백신업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박만훈상’의 2023년 수상자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교수진이 선정됐다.

7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올해로 2회를 맞은 박만훈상 수상자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리노 라푸올리 박사와 마리아그라지아 피자 박사가 공동 수상자로 ▲옥스포드대학 앤드류 폴라드 교수와 사라 길버트 교수가 공동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GSK의 리노 라푸올리 박사와 마리아그라지아 피자 박사는 소아·청소년에 드물게 발생하지만 치명률이 높은 수막구균 B 백신을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하며 전 세계 어린이 방역에 새로

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 받았다.

옥스포드대의 앤드류 폴라드 교수와 사라 길버트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응에 널리 활용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전 세계인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첫 단계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앤드류 폴라드 교수는 옥스포드대학 소아과의 백신 그룹을 이끄는 책임자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을 이끈 주역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동 개발자이자 옥스포드대 백신학 교수인 사

라 길버트 교수는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수준의 백신 생산시설로의 백신 생산 기술 이전 등을 연구하며 신속한 신규 백신 개발에 기여했다.

이번 수상자는 제품 김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 김훈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백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의미있는 결과를 낸 개인 및 단체를 심사해 선정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후원하고 IVI가 주최하는 박만훈상은 국내 세파배양 백신의 선구자인 고(故) 박만훈 SK바이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옥스포드대학 앤드류 폴라드 교수(왼쪽)와 사라 길버트 교수가 2023년 박만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이언스 부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백신 업계에서 의미있는 공적을 세운 연구자 및 단체를 시상코자 2021년 신설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박만훈상을 백신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정례화하고, 전 세계 백신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2억원의 상금을 출연한다. 시상식은 고(故)박 부회장의 타계 2주 기인 다음달 25일 진행된다.

IVI 제품 김 사무총장은 “제2회 박만훈상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전 세계 백신 분야 발

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김훈 대표는 “백신을 개발하는 일은 긴 시간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인류 보건 증진이라는 하나의 뜻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과제”라며 “글로벌 보건 산업 증진에 크게 기여하신 고(故)박만훈 부회장의 정신을 계승해 앞으로도 국제백신연구소와 함께 백신의 개발 및 균등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KT&G, ‘레종’ 11종 전 제품 패밀리룩 통일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
제품명의 ‘R’ 활용한 심볼 이미지

KT&G가 ‘레종(Raison)’ 브랜드의 패키지 디자인을 전면 교체했다. 이번 리뉴얼은 레종 제품의 디자인을 일관되게 통합해 브랜드 통일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며, 패키지 외 각 제품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KT&G는 지난해 ‘레종’ 브랜드의 론칭 2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현대적 감성에 맞게 브랜드 리뉴얼에 돌입, 올해부터 새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편의점 등 전국 유통채널 및 면세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



KT&G가 ‘레종(Raison)’ 브랜드의 론칭 20주년을 맞아 현대적 감성에 맞게 패키지 디자인을 전면 교체했다. /KT&G

다. 2002년 ‘레종’이 출시된 후 총 일곱 번의 리뉴얼을 거친 후 이번이 여덟 번

째다.

지난 1월 출시한 신제품 ‘레종 리저브’와 이번 리뉴얼을 통해 레종 브랜드 11종 전 제품에는 ‘패밀리룩’ 디자인이 적용됐다. 제품 패키지에 ‘Raison’ 제품명의 ‘R’을 활용한 심볼 이미지로 차별적이면서 간결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고, 브랜드 로고와 제품명 등을 각 제품에 통일성 있게 배치했다.

또, 오리지널·프레소·휘바·프렌치 등 각 제품군에 맞게 고유의 패턴과 컬러를 반영해 종전보다 각각의 특성을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숨37° ‘마이크로액티브’ 2종 라인업

리페어 세럼, 소프트 핏 크림 출시

LG생활건강의 자연·발효뷰티브랜드 ‘숨37°’이 피부를 위한 오랜 연구와 숨쉬는 자연을 위한 브랜드 철학을 담은 신규 라인 ‘마이크로액티브’의 신제품 ‘마이크로액티브 리페어 세럼’과 ‘마이크로액티브 소프트 핏 크림’ 2종을 출시했다.

숨37°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마이크로액티브’ 라인은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 인해 손상되기 쉬운 피부에 오랜 기다림으로 응집한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았다. 10년 발효를 통해 얻은 핵심 성분 ‘트루-액티브’가 40가지 피부 영양 성분을 섬세하게 채워주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로 찾은 민감 케어 특허성분 ‘바이오렐라이드190’가 미세한 자극으로 매일 더 민감해지는 피부의 작은 부분까지 살펴 더 맑고 빛나게 숨쉬는 피

부를 완성해준다.

마이크로액티브 라인의 대표 신제품 ‘마이크로액티브 리페어 세럼’은 미세한 자극으로 민감해진 피부에 깊은 보습과 맑은 생기를 선사한다. 피부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수분감을 부여하는 피부 10층 보습 효과와 손상된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피부 장벽 리페어 효과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탄탄하게 보호해 준다. 특히 피부 결을 부드럽게 정돈해 민감한 피부에도 맑고 건강한 10종 자연광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함께 출시된 ‘마이크로액티브 소프트 핏 크림’은 촉촉하게 밀착되는 포물러가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주며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준다. 자극으로 인한 트러블을 개선하고 예민해진 피부를 보호하며, 보이지 않는 피부 탄력까지 채워주는 10종 미세 탄력 충전 효과로



피부에 풍부한 탄력감을 부여한다. 또한 끈적임 없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스며드는 텍스처가 편안한 사용감을 전해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보령컨슈머헬스케어 “하루 한 알로 눈 건강 챙겨요”

루테인지아잔틴 아스타잔틴 플러스

보령 자회사인 헬스케어전문기업 보령 컨슈머헬스케어가 눈의 노화와 피로 개선에 필수적인 성분을 담은 ‘보령 루테인지아잔틴 아스타잔틴 플러스’를 출시했다.

‘보령 루테인지아잔틴 아스타잔틴 플러스’는 하루 한 캡슐만으로도 눈 건강과 눈의 피로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구 관련 건강기능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과 함께 세포 건강

에 도움을 주는 아연과 셀레늄을 하나의 제품으로 결합한 건강기능식품이다.

루테인지아잔틴은 노화로 인해 줄어들 수 있는 눈의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빛을 가장 선명하고 명확하게 받아들이는 황반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분포하고 있으며, 해당 성분은 체내 합성이 불가능해 외부로부터 공급이 필수적이다. 본 제품은 루테인지아잔틴의 1일 권장 섭취량인 20mg을 포함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광동제약 비타민C 가득 당류 땀 ‘비타500 제로’

광동제약은 건강한 비타민C를 가득 채운 ‘비타500 제로(ZERO)’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비타500 제로’는 당류와 칼로리 함량을 ‘0(ZERO)’으로 설계한 제품이다. 기존 ‘비타500’에 함유된 비타민C(500mg)와 상큼한 매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건강함을 배가한 것이 특징이다. ‘비타민C를 가득 채운 제로’라는 콘셉트로 소비자에게 어필한다.

제품 패키지는 활력을 상징하는 오렌지 빛 바탕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계승하고 반짝이는 실버 색상의 ‘ZERO’ 문구를 삽입해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했다. 특히 10입 패키지에는 광동제약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엠블럼이 삽입됐다. /이세경 기자

포인트앤 거품 쏙쏙 ‘딥 클린 힙 클렌징 폼’ 선택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클린 케어 브랜드 ‘포인트앤(point&)’에서 쏙쏙한 거품으로 모공 속 노폐물을 말끔히 세정해주는 ‘딥 클린 힙 클렌징 폼’을 새롭게 선보였다.

포인트앤 딥 클린 힙 클렌징 폼은 조밀하고 풍성한 거품으로 미세먼지는 물

론 블랙헤드부터 모공 속 노폐물까지 99.3% 말끔하게 세정해주는 클렌징 폼이다. 특히 코코넛에서 추출한 자연 유래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풍성한 거품이 부드러운 클렌징을 도와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세경 기자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기조강연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강연. 1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강연. 2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



강연. 3

은퇴 준비와 재테크 전략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2023. 3. 22 (수)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철저한 방역 하에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는 만큼, 사전 등록은 필수입니다

■ 축 사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 개 회 사 :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 기조강연 :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교수

■ 강 사 :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사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 의 : 100세 플러스 포럼 사무국(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

삼성전자서비스가 업계 최고임을 다시 증명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7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 서비스센터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2개 평가 항목 중 ▲고객 만족도 ▲서비스 혁신성 ▲기업 신뢰도 등 11개 영역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삼성전자



KBI동국실업, '현대모비스 파트너스 데이' 대상

KBI동국실업은 현대모비스와 협의회 간 공유, 공감, 소통의 장을 통한 협력관계 향상을 위해 개최한 '2023년 현대모비스 파트너스 데이'에서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박효상 KBI그룹 회장(오른쪽)이 '2023년 현대모비스 파트너스 데이'에서 대상 수상 후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I동국실업



삼표그룹, 저소득가정 아동에 새 학기 물품 전달

삼표그룹이 '삼표와 함께하는 새 학기, 새 출발 지원사업' 일환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책가방과 학용품 등이 담긴 새 학기 물품을 전달했다. 새 학기 학용품은 서울 성동구 지역의 저소득가정 아동에 전달할 예정이다. 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팀장(오른쪽)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차동범 나눔사업팀장에게 새학기 물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표그룹



하이트진로홀딩스, 요식업 종사자 자녀 학업 지원

하이트진로홀딩스가 요식업 종사자 자녀 대상의 장학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7일 밝혔다. 성적, 가정형편, 장학금 필요성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약 5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으며, 연간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이트진로홀딩스

에쓰오일

故 성공일 소방사 유족 지원

에쓰오일은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단독주택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김제소방서 고(故) 성공일 소방사(30세) 유족에게 위로금 3000만 원을 전달한다고 7일 밝혔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소방관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에쓰오일의 위로금이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용자 입장 빠진 공정위 심의… 카카오 과징금 부담”



인터뷰 | 장강철 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를 비가맹택시보다 우대(우선 배차 혜택)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국내 가맹택시협회 조직인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한티협)가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심의과정서 공정이 배제됐다는 것.

장 회장, 심의 공정성 지적 “소비자 편익 향상 평가 미흡 ‘몰아주기’ 주장 납득 불가”

장강철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 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공정위가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해당이 유또한 명확하지 않다. 공정위 전원 회의에 참석해 심사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이용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일, 8일 양일간 공정위 회의에 참관 자격으로 참석한 장회장은 “심의과정에서 공정위와 신고인(비가맹택시) 측은 이용자 편익과 이해당사(가맹택시)의 입장은 배제한채 모순적인 발언만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가맹택시 시스템이 소비자 편익을 높인 부분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심의현장에서 일반호출 배차 과정에서 가맹 택시 기사에게 우선 배차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토티루 기사의 골카드 수락률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인공지능을 통해 배차를 몰아줬다는 것. 이는 곧 카카오토티루가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에 장 회장은 “현재 가맹택시들은 목적지가 미표시 되고 강제 배차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비가맹택시들은 목적지가 표시되고 콜 또한 거부할 수 있어 골라잡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카카오토티루 측은 즉각 공정위의 주장에 반발하며 각 계층의 전문가(교수, 연구)들이 객관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제시했다. 그들의 공통된 결과는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정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장 회장은 “알고리즘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연구보고서를 공정위 측으로 제출했지만 해당 내용은 완전히 무시됐다. 심의 현장에서는 이해당사자(가맹택시) 주장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가맹택시들이 형평성을



장강철 한티협회장(오른쪽 첫번째)이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한티협

위해 전 택시 ‘목적지 미표시’를 요구하는 점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장회장은 “비가맹 일반택시 기사들은 목적지까지 거리를 보고 호출을 골라잡기 때문에 호출 수락률이 낮고 그로 인해 호출 배정도 적게 된다. 이런 이유로 배차 거부권이 없는 가맹택시 기사들과 수익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비가맹 택시들이 ‘미표시’를 해야 수락률이 올라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의 생태계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제발 등 짚는 꼴’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가맹들은 돈되는 먼 거리를 골라서 운행을 하면 되는데 굳이 미표시 장소를 요구하겠나. 이상하지 않나. 뒤에 어떤 뜻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카카오토티루나 한티협은 비가맹이 요구하는 미표시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 통과된다면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가

맹들이 실질적으로 얻는게 있을까 싶다. 통과된다면 이 모든 화살은 신고인의 주최측인 서평화로 쏠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맹택시만이 이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가맹택시가 소비자 편의 증가를 위해 목적지 미표시와 강제 배차 등 여러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반면 목적지가 보이는 비가맹 택시는 콜을 고르고 거절하는 몇 분 동안 이용자들은 계속 거절당하거나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이번 결론이 이용자들의 편익을 최 우선으로 생각한채 내린 공정하게 내린 결정인가”라며 “소비자들의 편익은 철저히 무시된 채 정치권들의 목소리만 반영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 뿐”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행복언라이언스, 지역사회 결식우려아동 지원

당진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1년간 양질의 밑반찬 제공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가 당진시 결식우려아동 지원을 위한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기업, 지방정부, 일반 시민 그리고 지역사회의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이번 당진시 행복두끼 프로젝트에서는 총 40명의 당진시 거주 아동 대상으로 1년간 양질의 밑반찬을 지



(왼쪽부터)조태용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본부장, 조인영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행복나래) 본부장, 오성환 당진시 시장, 박재덕 SK E&S Renewables 개발 Group 그룹장, 류성선 SK E&S ESG본부본부장 /행복얼라이언스

원할 예정이다.

당진시청은 결식우려아동을 발굴하고, SK E&S는 대상 아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기부했다.

/최빛나 기자

종근당홀딩스 국동완 등 3인 ‘종근당 예술지상’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

종근당홀딩스가 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종근당 예술지상 2023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을 갖고 국동완, 박미라, 한지형 등 3인을 올해의 작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종근당 예술지상은 미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두 차

레의 비공개 심사를 통해 3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올해 선발된 작가들은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으로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진지하게 구축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종 작가로 선발됐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창작금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이세경 기자 selee@



종근당 예술지상 2023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에서 이충관 한국메세나협회 사무처장, 한지형 작가, 박미라 작가, 국동완 작가, 김태영 종근당홀딩스 대표이사, 김노완 아트스페이스 휴 대표(왼쪽부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정우진 ◇과장급 전보 △비서실장 박준형 △운영지원과장 이기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방현하 △수도권정책과장 박명주 △북한도시정책과장 박정수 △해외건설정책과장 최신희 △첨단물류과장 안진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박대순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채소과장 문지혜

부음

▲박영모씨 별세, 박영훈(강원도의회 의장비서실장)씨 부친상=7일, 강원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춘천 안식원. 033-258-9401
▲임석남씨 별세, 이인재(전 MBC 영상미술국장)·이선재(불교방송 사장)·이현재(전 한국NCR 대표)씨 모친상, 정현주·황규용씨 시모상=6일, 동국대 일산 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031-961-9401
▲전창호씨 별세, 전한영(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씨 부친상=7일, 강릉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33-610-1444
▲김현선씨 별세, 장준용(부산 동래구청장)씨 장모상=7일,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5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부산 영락공원·정관추모공원. 051-550-9991

우아하고 세련된 직사각형 케이스에
담긴새로운 작품 레이몬드 웨일
토크타컬렉션을 만나보세요.



RAYMOND WEIL
GENEVE

www.raymondweil-korea.com
레이몬드웨일 부티크 청담 1544-7593

'온돌'과 합당한 대접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봄이 왔다. 안도감이 밀려든다. 겨울, 참 잘 났다. 온돌 덕분이다. 'K 브랜드' 맨 앞에 '온돌'을 놓고 싶다. 온돌은 한류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지, 한국의 힘이 어디서 비롯됐는 지 알게 한다.

오늘날 외국인들은 '한(韓) 스타일'에 열광한다. 특히 한국에서 겨울을 낸 외국인 중에는 온돌생활에 신선한 감동을 고백하는 이가 많다. 심지어는 온돌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도 있다.

그래서 다시금 온돌을 추억한다. 온돌도 당연히 한류의 새로운 장르로 대접받아야 한다. 특히 'K-주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온돌이야말로 인류의 미래일 수 있다. 온돌은 오래전부터 몸과 몸으로 체득, 계승해온 우리 '삶의 기술'이다. 우리만이 발현해온 정신이다. 온돌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과 산업적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프랑스의 와인이나 이탈리아의 피자처럼 우리의 문화 정체성, 즉 온돌을 강조해

도 지나치지 않다. 요즘 중국은 온돌도 김치나 한복처럼 자기문화라고 '도적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특히 그렇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옥스퍼드 사전에는 'ondol(온돌)'로 표기돼 있으며 '한국의 고유한 바닥 난방장치'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온돌은 아랫목이 덮혀지듯 은근하면서도 집요하게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인의 아랫목을 점령해가고 있는 온돌이야말로 한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현재 독일 등 유럽국가에선 신축된 주택의 절반 이상이 온돌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온돌 사용을 권장하고, 양로원 등에는 아예 의무적으로 온돌을 적용도록 법제화한 경우도 있다.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도 온돌방식을 적용한 주택은 '고급' 혹은 '부(富)의 상징'으로 여긴다. 이미 일본에서는 온돌 사용이 피부 질환, 감기·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에 힘입어 고급 양로원의 선택기준으로 삼고 있다. 세계 각국이 우리 조상들이 이뤄온 '참살이' 전통을 바탕으로 온돌산업을 육성하느라 각축을 벌이고 있다해도 틀리지 않는다.

온돌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하다. 찜질방

의 따뜻한 바닥이 그야말로 힐링공간인 것처럼 말이다. 비용도 차이가 크다. 외국처럼 라디에이터로 난방하는 경우 그 비용이 온돌보다 4~5배 많이 든다. 우리는 겨울에도 집안에서 반팔차림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코타츠안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한 사례도 수시로 나타날 지경이다.

온돌은 우리 삶의 방식에 스민 DNA가 어떻게 산업화, 세계화로 이어지는지를 알려주는 사례다. 또한 우리 전통이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를 제시해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다. 온돌에는 미래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 높은 감성이 담겨 있다.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민족의 정체성, 문화적 속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면면히 이어온 문화산업이다. 여전히 우리를 상징하는 미래산업인 셈이다. 그야말로 명품이며 미래 문화콘텐츠다. 그러므로 이제 온돌 좀 제대로 대접해주자. 유형적인 유산은 생명이 유한하다. 그러나 무형 유산은 사람을 통해 전달되며 미래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온돌산업 만큼은 우리 먹거리임을 분명히 챙기자.

/건설부동산부 선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이통사, 중간요금제 빠르게 내놓아야



기자 수첩
채윤정
(산업부)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이동통신사들이 데이터 40~100GB 구간 내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통사들이 24GB에서 31GB의 데이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선보였지만, 데이터 양이 미미하고 가격도 1만원 안쪽으로 밖에 차이나지 않아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더 큰 데이터를 주는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라는 것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상반기 중 중간 구간의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대해 통신사와 협의 중"이라며 "이달 중 5G 시니어 요금제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현재 새로운 내용의 중간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중간요금제를 포함한 새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고객이 원할 만한 요금제를 설계해야 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이 40GB 이상의 중간요금제 출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내놓은 중간요금제는 이용자들이 선택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많이 부족해, 결국 많은 고객들이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중간요금제 출시를 두고 '통신사의 수익성이 줄어들 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만약 데이터 50GB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내놓는다면 실제로 이 중간요금제로 갈아타는 고객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1인당 1만원 안

쪽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시니어 요금제도 LG유플러스는 이미 월 4만 5000원의 요금을 내놓았고, 이번달 경 SKT와 KT도 관련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요금제 출시로 당장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통사들은 중간요금제 출시를 이제 더 이상 고민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지난해 이통사들에게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작 중간요금제 내용에 대해서는 뒷집을 찢던 책임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통신 분야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를 한 만큼, 정부도 이통사에게 좌지우지 되지 말고 진정한 의미의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이를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echo@

오늘의 운세 3월 8일 (음 2월 1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마음을 단단히, 48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는 될 수 없다. 60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72년생 하나를 투자했는데 열을 얻는 좋은 날. 84년생 성실과 신용이 있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37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운전조심. 49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61년생 숨은 실력을 발휘하고 남들의 인정도 받는다. 73년생 이간질하는 사람을 경계. 85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커진다.



38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움이 느껴지는 날. 50년생 아랫사람의 조언으로 어려움을 극복. 62년생 유유상종(類類相從)이니 탁한 무리에 물들지 않도록. 74년생 이성친구보다는 악기를 배워보자. 86년생 붉은 마음과 아량이 필요.



39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길이 보인다. 51년생 내가 믿어야 남도 설득 시킬 수 있다. 63년생 걱정만하고 해결은 못한다. 75년생 자극한 마음으로 구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87년생 돼지띠와의 거래는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40년생 심신은 피곤하나 재물은 들어오는 날. 52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는 날이니 힘내자. 64년생 물은 고이면 썩기 시작. 76년생 간발의 차이로 기회를 놓친다. 88년생 스스로 뿌린 씨앗은 스스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



41년생 추억이 괴로운 배고픔으로 변한다. 53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65년생 의외의 귀인이 바로 옆에 있었다. 77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니 준비하자. 89년생 불평 말고 내가 먼저 남을 중히 여겨보라.



42년생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54년생 잘못되면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도록. 66년생 매매수가 있으니 부동산 거래가 원만. 78년생 술 마시고 싶은 본능을 억제할 줄 알아야. 90년생 재물이 뜬구름과 같지만 그래도 벌어야만.



43년생 뜻대로 되는 자식은 별로 없으니 마음을 비워라. 55년생 밀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라. 67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79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온다. 91년생 월성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44년생 운동을 열심히 하고 먹는 것에 신경. 56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전진. 68년생 길을 떠나게 되면 상바약을 챙겨라. 8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생각하지도 마라. 92년생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서 나오니 성실과 신용을.



45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57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이 든다. 69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찾아라. 81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특히 말조심. 93년생 이직보다는 현재에 만족하면 손실은 없다.



46년생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 58년생 자식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른다. 70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이 좋으나 손재수도 있다. 82년생 자신에게 있는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하도록. 94년생 자기 흥 열 가진 사람이 남의 잘못을 흉본다.



47년생 끓는 물을 꼭 만져봐야 뜨거운 줄 알 것인가. 59년생 감는 운동을 시작해보라. 71년생 이시준비를 한다. 83년생 오늘부터 가계부를 정리하는 계획을. 95년생 직장에서 내게 잘해주길 기대 말고 내가 업무파악을 빨리해서 도움 되도록.

김상회의四季

간단 풍수

풍수학은 긴 역사를 지닌 실천학문이다. 마냥 신비적인 것도 아닌 것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경험과 통찰 지혜가 집적된 실용학이다. 풍수의 가장 일반적인 체험은 당장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떠올려 보면 된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 단박에 근처 아파트 주민이나 건물의 사람들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당했다며 분쟁이 시작된다. 일조권이니 조망권이니 하는 것은 양택풍수에 해당된다. 생활에 있어서 당장 야기될 손해와 불편이 대입되는 것이다.

조상들의 뒷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음택풍수가 적용된다. 좌청룡 우백호며 배산임수 개념이 들어서는 것이다. 음택풍수와 하더라도 별이 잘 드는 양지를 당연 선호한다. 산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햇볕 좋고 바람 잘 통하는 곳이 최고이다. 또한 사주의 속성을 풀이할 때 물상物象을 대비시키는 지라 물상풍수학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토끼띠나 묘 일주의 사람은 나무와 풀이 있는 전원에 사는 곳을 좋다고 본다. 아파트 같은 곳에 산다면 거실에 관목이나 작은 나무화분을 키우는 것도 권장한다. 토끼는 관목이 있는 초원이 길지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구산동(龜山洞)이나 구포(龜浦)처럼 거북이 '구'자가 있는 동네는 거주지로서는 피하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특히 구포 같은 곳은 큰 강물이나 바다 어귀에 속하므로 더더욱 금물인데 이는 '별주부전'에서도 보듯이 자라의 꾀임에 빠진 토끼가 깊은 물속 용궁에 가서 겪은 고초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반대로 용띠나 용 일주의 사람은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은 길지라 할 수 있다. 동네 이름에 물이 들어가 있는 여의도나 한강근처 용산 등은 원만하다 못해 항상 자기기를 펼치며 살 수 있는 기본점수를 따놓은 곳이 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4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4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물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3	7			
				9			
	3		5		4		8
		2	9		1	3	
				7			
1	2					6	5
		3			1		
6		7			2		3

3	7					4	
6							9
							5
			2				
				5	3		
				1		2	9
7					6	1	
		4			7		2
	1				5		3

정답

8	7	6	1	8	2	9	9
2	6	1	9	2	9	8	7
9	9	8	8	7	2	6	1
8	1	7	9	2	2	9	6
9	2	8	1	9	6	2	7
6	2	9	8	6	7	9	1
2	8	2	9	9	1	8	6
7	8	9	2	6	1	8	2
1	9	6	2	8	8	7	9

2	8	6	9	8	7	9	1
2	9	9	2	8	1	7	6
8	7	1	9	2	6	8	2
9	6	2	8	1	9	2	8
7	1	9	8	9	2	8	6
8	2	8	7	6	2	1	9
9	9	2	2	7	8	6	1
6	8	8	1	2	9	2	7
1	2	7	6	9	8	9	2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공부만 잘하면 그만?... 대학 정시 ‘학폭’ 조항 없거나 미미

학폭 전력에도 명문대 진학 공분
심각성 비해 법·제도 대응 뒤떨어져
정부·정치권, 재발 방지 한 목소리

정순신 전 감사의 아들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에도 입시에서 단 ‘1점’의 감점만 받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특권층 자녀의 부정한 입시 혜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정순신 감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제2의 정순신 아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순신 재발 방지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감사특권 진상조사단’이 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담회를 열고 윤 정부를 공식 비판한 뒤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진상조사단과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8일 서울대 총장실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감사특권 진상조사단’이 기자회견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입시 과정에서 정 전 감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추후 법무부와 대통령실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 전 감사(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이 주목되면서 대입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 사항 반영 의견도 커지고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했던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입시요강을 보면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경

우 수는 성적에서 1점을 뺀다’고 적혀 있다. 서울대 측도 논란이 불거지자 규칙에 따라 1점을 감점했음에도 합격선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더 문제는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서강대학교 등 타 주요 대학 정시에서는 학폭 관련 조항 자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날 강민정 의원은 “정 전 감사의 대처는 특권층 검사 자녀의 ‘아빠찬

스’로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욱 큰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욱 의원은 간담회에서 “정 전 감사와 그 아들이 감사 찬스를 남발하며 본인들의 잇속과 자리를 챙기는 동안 학폭 피해자는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고, 또다른 피해자는 한국을 떠나야만 했다”며 “정 변호사의 아들이 저지른 학폭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에는 공통된 찬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일명 ‘아빠 찬스’라면, 정 변호사 본인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검사 동료 찬스’라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미이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순신 사태가 반복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꼭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학폭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자리잡으면서 날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

지만 실질적인 예방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학회가 발간하는 ‘청소년학연구’ 최신호 내 논문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대학생 1030명 중 34%가 학폭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인 54.5%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하면서 그 심각성이 주목된다. 또한, 정부의 ‘2022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폭 피해율이 1.7%에 그쳤던 만큼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모습이 지적된다.

이후조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해 미흡한 제도 개선 및 조치 강화 의사를 밝혔던 만큼 앞으로 학폭 관련 변화가 주목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이 최종합격자 선정 시 학내·외 학폭 징계를 감점 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26兆... 사상 최대

교육부·통계청 전년도 대비 10.8% ↑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52만원

2022년 초·중·고 학생들의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결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전년도 약 23조 4000억원에 비해 2조 5000억원(10.8%)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참여율과 주당 참여시간은 증가한 모습이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으로 2021년 36만7000원에서 지난해 41만원으로 11.8%,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평균 52만4000원으로 전년도 48만5000원 대비 7.9%가 늘어났다. 특히 월평균 40만원 미만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지만,



만, 4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소득별 사교육 지출·참여율도 더 벌어지고 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64만8000원으로 가

장 높았고,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17만8000원으로 무려 47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비 범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 지출 비용이 이에 포함된다. 일반교과(국어, 영어, 수학 등)와 논술,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과 취미교양,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 등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했다”며 “교육부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파주시, 운정신도시 교통망 대책 발표

DRT 중심 보완... 야당역 버스노선 증차

배차간격 단축 등 이용객 편의 제고

파주시가 운정 및 교하지구의 광역교통 대책 및 단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운정신도시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 결과 파주 운정1·2·3지구 및 교하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광역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및 수요응답형(DRT) 중심의 단기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해당 지구에서 야당역(경의중앙선)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 증차(075번 2대, 076번 1대)를 통해 배차간격을 단축하는 등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고, GTX-A 개통 후 운정역을 경유하도록 경로를 변경하고 추

가 증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GTX-A 개통 시점에 맞춰 운정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총 운행대수 14대)을 추가 신설해 해당 지구와 광역교통수단(운정신도시~운정역 GTX~운정역 경의중앙선) 간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세부 운행노선 및 운행대수는 향후 내부 검토(파주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교통취약(소외)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형교통모델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국비 24억2천만원을 추가 확보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상반기 업체 공개입찰을 통해 3개 지역(탄현, 산남, 상지석) 사업자 선정과 2개 지역(야당동, 출판2단계) 증차를 추진, 당해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내달 30일 ‘서울페스타 2023’ 개최

행사 슬로건 ‘필 더 리얼 서울’

서울시는 내달 30일부터 5월7일까지 광화문광장과 잠실종합운동장 등 시내 곳곳에서 ‘서울페스타 2023’ 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행사 슬로건은 ‘필 더 리얼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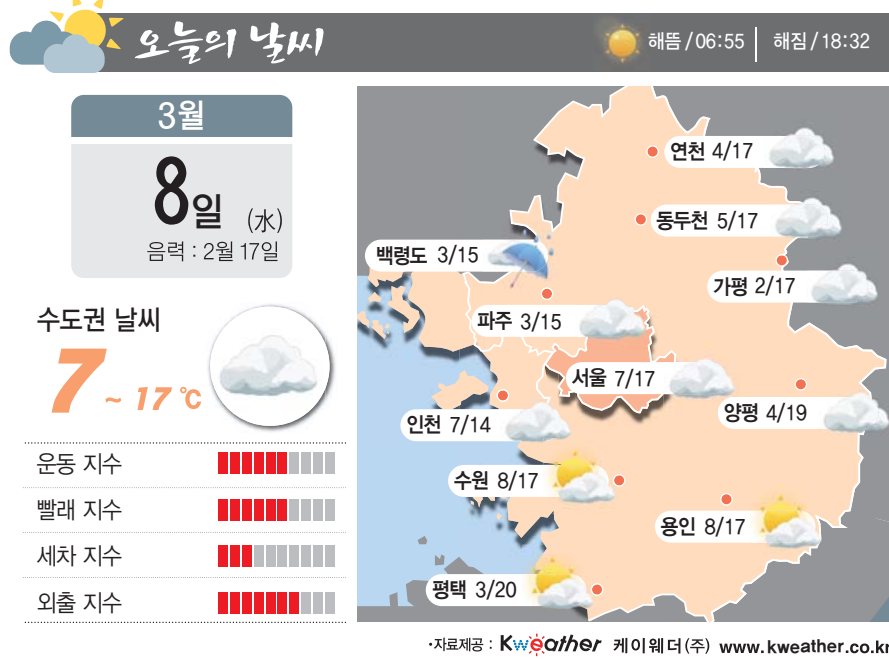
울’이다. 서울의 매력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축제를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막 공연은 다음달 30일 오후 7시50분부터 100분간 잠실종합운동장 내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엔하이픈, 더 보이즈, 아이쿱, 이영지 등 케이팝스

타들이 무대에 선다.

축제 기간 메인 행사장인 광화문광장에는 서울관광 종합안내소인 ‘광화문 서울스퀘어’가 마련된다. 서울스퀘어 시작지점에는 ‘웰컴게이트와아트웍 휴식존’이 조성된다. 이곳에는 인기 캐릭터 벨리곰 조형물이 설치된다. K-드라마·뷰티·패션을 주제로 한 체험공간도 운영된다.

/김현정 기자 hjk1@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독일, 화웨이·ZTE 기기 사용금지 계획...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심
▲ 일본 새 주력로켓 H3 발사 실패...2단 로켓 점화 안 돼 /사진 뉴시스



▲ IAEA 사무총장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활동 징후 여전” /사진 뉴시스
▲ 나토,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러시아군 병력손실 ↑...우크라 5배

▲ 사우디, 아시아·유럽 판매 원유 가격 두 달째 인상
▲ 비용 절감 나선 아마존, 무인 편의점 일부 폐쇄



[라이프]
초저출생 시대
유아동 명품은
승승장구
너

metro®

Life

[바이오]
코로나19·수막구균
백신 개발자 4명
‘박만훈상’ 수상
L2



봄바람 따라... 물길 따라... ‘한성백제 숨결’ 느껴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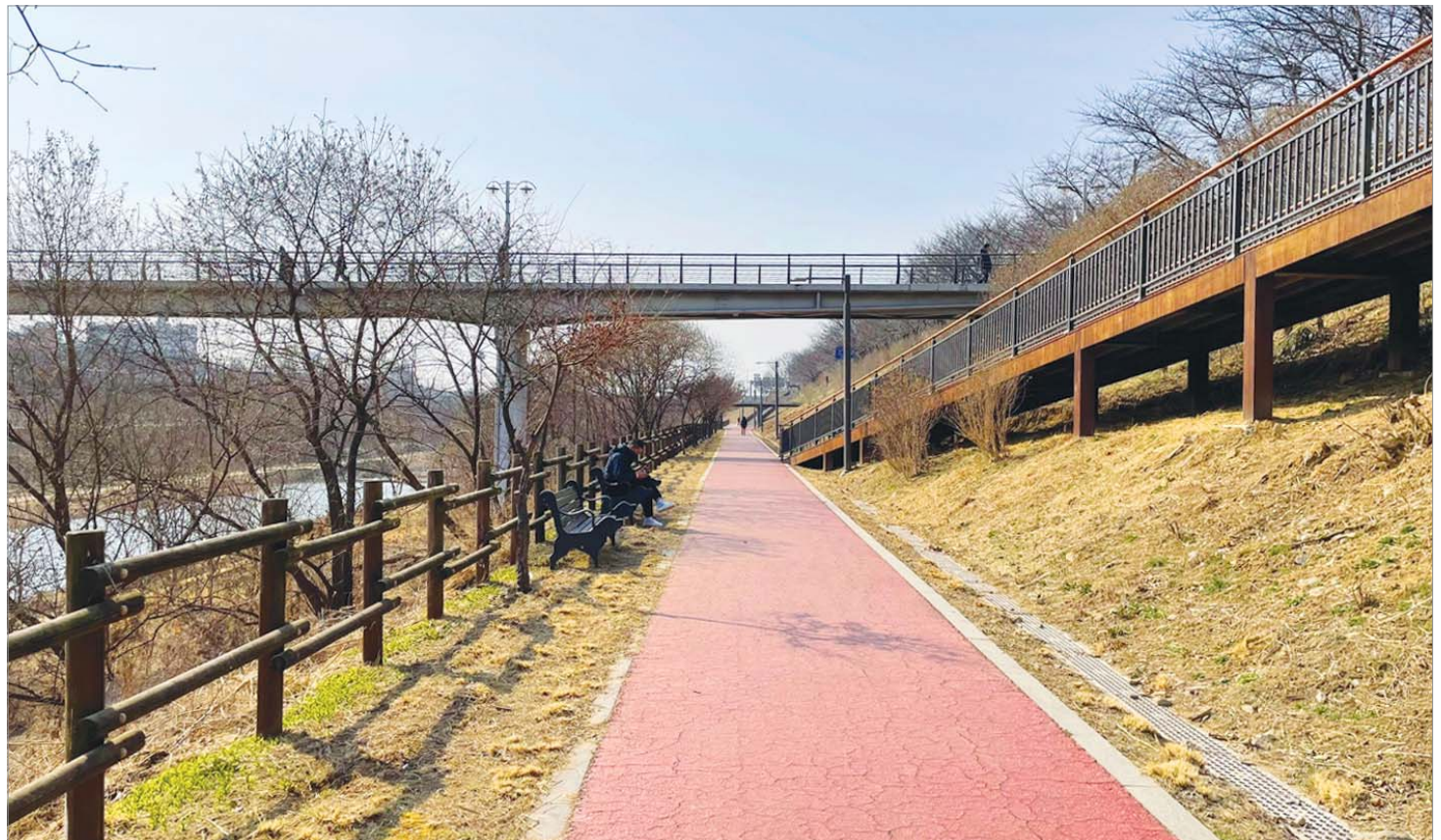
되살아나는 서울

송파구 ‘성내천’

과거 우리 선조들은 ‘치산치수’(治山治水)를 국토 관리의 요체로 삼았다. 산과 물을 다스려 산사태나 홍수 같은 재난을 막는다는 뜻으로, 하천도 신경 써서 다뤄야 할 대상 중 하나였다. 맑은 날에는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게 해주지만, 큰비가 내려 하천 수위가 범람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하천법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하천’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천 가운데 규모가 큰 것은 ‘강’, 작은 것은 ‘천’으로 부르며, 서울에서는 유량이 가장 많은 한강을 제외하고는 모두 ‘천’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하천의 A to Z를 다룬 책 ‘서울의 하천’에 따르면, 물의 양이나 유로(물이 흘러가는 길)의 길이, 유역(하천에 흐르는 물의 근원이 되는 비나 눈이 내리는 전 지역)의 넓이 등을 종합해 가장 유력한 것을 본류라 하고, 본류에 합류하는 물줄기를 지류 또는 지천이라고 부른다. 서울의 경우 한강이 본류이고, 성내천·중랑천·홍제천·안양천·탄천 등이 지류에 해당한다.



6일 오후 한 시민이 성내천 자전거리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도심 속 명품 산책길

지난 6일 오후 성내천을 찾았다. 지하철 2호선 잠실역 7번 출구 앞에서 4318번 버스를 타고 7개 정류장을 이동해 ‘풍성중학교·잠실올림픽아이파크’ 정거장에서 하차해 몽촌 2 빗물펌프장을 지나 성내천 산책길로 이동했다.

서울역사편찬원에 의하면, 한강의 제1지류인 성내천은 남한산성의 청량산에서 발원해 2km의 급경사 산간 계곡을 따라 북서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서울 송파구 마천동을 거쳐 올림픽공원의 몽촌토성을 돌아 잠실철교 부근에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준용하천이다. 성내천 전체의 유로 연장은 9.77km, 유역 면적은 33.56㎢이며, 평균 하폭은 70m다. 풍납리토성 안쪽의 성내리라는 마을을 관통하는 물줄기라서 성내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성내천 일대는 고대 백제의 도읍지로서 몽촌토성, 방이동 고분군 등 문화유적과 백제인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유서깊은 곳”이라며 “조선 시대부터 행정구역상 광주에 소속된 지역이었으나 1963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성내천도 시 관할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시민들은 분홍 진달래색이 입혀진 성내천 산책길에서 일행과 담소를 나누며 이른 봄의 푸근한 날씨를 즐겼다. 성인 3명이 옆으로 나란히 걸으면 딱 할 정도로 좁다란 산책로의 우측 경사지에는 수목이 식재된 잔디밭이 펼쳐졌다. 지난 겨울 묵은 갈색 잔디 틈새로 초록빛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경보를 하며 호젓한 오솔길을 무심하게

성내리 관통하는 한강의 제1지류 고대 백제 도읍지로 유서깊은 곳 수목 식재된 잔디밭·오솔길 산책로 청동오리 유명한 하천도 볼거리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공사 진행 2025년까지 수변활력거점으로 35억 투입, 노을·전망 명소 조성

지나가던 동네 주민도 자연의 푸르름이 반가웠는지 걸음을 멈추고 스마트폰으로 새로 난 잔디 사진을 찍었다. 산책길 왼편에는 나무 울타리가 쳐졌고, 그 뒤로 성내천이 흘렀다.

인근 공사장의 토사가 유입돼 하천의 물은 흙탕물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틈새로 비치는 햇살로 인해 윤슬이 눈부시게 반짝였다. 서울시내 하천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청동오리도 이날 성내천에서 목격됐다. 오리들은 물 위를 둥둥 떠다니며 한량처럼 여유를 만끽했다.

◆수변활력거점으로 재탄생

잠실파크리오 3단지아파트에서 신천빗물펌프장 방향으로 성내천 산책길을 쫓다 걸으면 낮은 다리 2개가 나온다. 신천1교와 신천2교 일대에서는 성내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성내천 복원 공사는 오는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송파구는 전했다.

신내천은 잠실철교 밑에서 한강으로 흘러들었다. 하천의 물색은 거대한 강에 이르러야 햇빛에서 푸른빛으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현재 시내를 흐르는 332km의



성내천 자전거길 일대.



시민들이 잠실철교 밑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구경하고 있다.

소하천과 실개천에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25개 전 자치구에 1곳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만들어 오는 2025년까지 총 30개소를 수세권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가운데 한 곳인 송파구 성내천에서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올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5억원을 투입해 성내천에 노을·전망 명소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문화재청, 16~18일 광화문 월대 발굴 조사 현장 한시적 공개
▲뉴진스, 디토(Ditto) 멜론서 또 신기록 ...77일 연속 1위 /사진 뉴시스

▲국립국악원,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전막 순회공연 시작
▲‘지역축제 기지개’...코로나 전보다 방문객 20% 증가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 1700만원...대만 암표 기승
▲메시·모드리치, A매치 합류...은퇴 아직 안한다 /사진 뉴시스